

2009. 3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신후식 · 유승선 · 연훈수

I.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비교

II. 경제위기 발생의 영향

III. 경제위기와 대내외 경제여건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09년 상반기 중 국내경기하강 속도는 2008년 4/4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빨라지면서 외환위기 못지 않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경제는 급락 후 급등하는 "V"자형의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세계교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침체로 급락 후 회복하는 "L"자형의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사업자 부담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이직, 전직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발간등록번호 : 31-9700231-000316-14

2009년 상반기 중 국내경기하강 속도는 2008년 4/4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빨라지면서 외환위기 못지 않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급락 후 급등하는 “V”자형의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세계교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침체로 급락 후 횡보하는 “L”자형의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사업자 부담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이직, 전직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후식·유승선·연훈수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02-2070-3073

shs5401@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신후식·유승선·연훈수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요약 >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

- 최근(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경기 하강속도와 외환위기 당시의 국내경기 하강속도를 비교해 볼 때 해외수요(수출)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내수부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당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8년 1/4분기 -5.3%, 2/4분기 -7.9%, 3/4분기 -8.1%, 4/4분기 -6.0%로 1998년 3/4분기를 바닥으로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1999년 1/4분기 중 5.9% 성장 -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최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한 후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이 특징
 - 최근의 국내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8년 4/4분기 3.4% 감소하였고, 2009년 상반기 중 감소 폭은 2008년 4/4분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임
 - 이는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11월과 12월부터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급락 후 급등의 “V”자형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급락 후 횡보의 “L”자형 경기회복이 예상됨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비교

- 최근의 대외여건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악화되었으나 국내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국내경제에 대한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을 듯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대외여건과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 비교

| | | 글로벌 금융위기 | 외환위기(1997년) |
|-------------------------|----------------|--|-------------------------|
| 대외 여건 | 세계경제 | 동시 침체 | 미유럽 견조한 성장 (동아시아 침체) |
| | 세계 교역량 | 동시 침체 | 소폭 둔화 |
| | 세계 주택가격 | 동시 하락 | 견조 |
| | 세계 주가 | 동시 급락 | 미유럽 견조(동아시아 급락) |
| | 유가 | 급락 | 하락 |
| | 엔/달러 | 하락(엔화 강세) | 상승(엔화 약세) |
| | 국제금리 | 동시 급락 | 정체 후 하락 |
| 국내 경제주 체들의 건전성 | - 대외건전성 | | |
| | • 외환보유고 | 크게 개선 | 저수준 |
| | • 단기 외채 | 저수준 | 고수준 |
| | • 경상수지 | 적자 반전 | 적자 |
| | - 금융부문 건전성 | | |
| | • BIS 자기자본 비율 | 개선 | 저수준 |
| | • ROA | 개선 | 저수준 |
| | - 기업부문 건전성 | | |
| | • 이자 보상 비율 | 크게 개선 | 저수준 |
| | • 부채 비율 | 저수준 | 고수준 |
| | • 매출액 영업 이익률 | 크게 개선 | 저수준 |
| | - 가계부문 건전성 | | |
| | • 국민소득 대비 가계대출 | 크게 상승 | 저수준 |
| • 도시근로자 경상소득 상승률 | 낮은 증가세 | 높은 증가세 | |
| • 개인 순저축률 | 저수준 | 높은 수준 | |
| 총 합 | | 최근의 금융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비교해볼때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대외여건은 악화되었으나 국내경제 구조의 건전성(위기대응 능력)은 개선된 상태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내수회복대책

- 최근의 대외여건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악화되었으나 국내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은 강해졌다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수출 감소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의 급감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중요한 상황이다
 -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사업자 부담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이직, 전직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 등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처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수출입금융 및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차 례

요 약 / iii

I.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비교 / 1

- 1. 경제위기의 원인 1
- 2. 국가별 경기하강 속도 3
- 3. 금융·외환시장 양상 7
- 4.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 9

II. 경제위기 발생의 영향 / 11

- 1. 경제구조의 변화 11
- 2. 부문별 하강속도 16

III. 경제위기와 대내외 경제여건 / 32

- 1. 대외여건 32
- 2. 국내경제 여건 33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5

- 1. 세계경기순환 동조성 강화 45
- 2. 주요국 경기부양정책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48

부록 57

표 차례

| | |
|---|----|
| [표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원인비교 | 3 |
| [표 2] 주요국 소매 판매 추이 | 4 |
| [표 3]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 5 |
| [표 4] 주요국의 수출입 추이 | 6 |
| [표 5]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금융·외환시장 양상 비교 | 7 |
| [표 6]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 관련 지표 추이 | 8 |
| [표 7]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관련 지표 추이 | 8 |
| [표 8] 수출구조 변화 추이 | 11 |
| [표 9] 외환위기와 최근의 내수와 수출매출 비교 | 12 |
| [표 10] 외환위기와 최근의 지역별 수출입 비중 비교 | 13 |
| [표 11]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수출 비중 비교 | 13 |
| [표 12]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제구조 비교 | 14 |
| [표 13] 취업자수 추이 | 15 |
| [표 14] 외환위기와 최근의 산업형태 및 규모별 산업 생산 | 17 |
| [표 15]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산업생산 비교 | 18 |
| [표 16]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재고순환 비교 | 19 |
| [표 17] 우리나라 품목별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 추이 | 20 |
| [표 18]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가동률 지수 비교 | 21 |
| [표 19] 외환위기와 최근의 소비재 판매 비교 | 22 |
| [표 20] 외환위기와 최근의 설비투자 관련 지표 비교 | 23 |
| [표 21] 외환위기와 최근의 건설관련 지표 비교 | 24 |
| [표 22] 외환위기와 최근의 지역별 수출액 비교 | 25 |
| [표 23]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수출입물량 비교 | 25 |
| [표 24] 외환위기와 최근의 순상품 교역조건 비교 | 26 |
| [표 25] 외환위기와 최근의 용도별 수입액 비교 | 27 |
| [표 26]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상수지 비교 | 28 |
| [표 27] 외환위기와 최근의 자본수지 비교 | 29 |
| [표 28] 외환위기 이후 지출부문별 성장률 추이 | 30 |
| [표 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출부문별 성장률 추이 | 30 |
| [표 30]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 | 32 |

| | | |
|--------|--|----|
| [표 31] |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 관련지표 비교 | 34 |
| [표 32] | 국내주가 변동과 대외 채무 | 35 |
| [표 33] | 우리나라 주식 투자국의 주가와 환율 변동률 추이 | 36 |
| [표 34] | 국내은행 외화차입 동향 | 37 |
| [표 35] | 국내은행의 2009년 외화차입 만기 도래 규모 | 38 |
| [표 36] |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은행부문 건전성 관련 지표 비교 | 39 |
| [표 37] |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기업건전성 관련지표 비교 | 40 |
| [표 38] |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채산성 관련 지표 추이 | 40 |
| [표 39] |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분포 변화 | 41 |
| [표 40] | 외환위기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익성 비교 | 42 |
| [표 41] | 가계신용 잔액 추이 | 43 |
| [표 42] |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이후 국내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 비교 | 44 |
| [표 43] | 미국 경제성장률과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 | 45 |
| [표 44] | 미국과 일본의 경기순환 | 47 |
| [표 45] |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 48 |
| [표 46] | 미국 재무부의 금융안정 계획의 주요내용 | 49 |
| [표 47] | 미국의 경기부양안 | 49 |
| [표 48] | 주요국 경기부양 추진 규모 | 50 |
| [표 49] | 아시아 경제위기시와 최근의 중국 경제여건 및 정책 비교 | 50 |
| [표 50] | 국가별 경기부양 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 | 52 |
| [표 51]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52 |
| [표 52] | 글로벌 경제 장기침체 요인 | 54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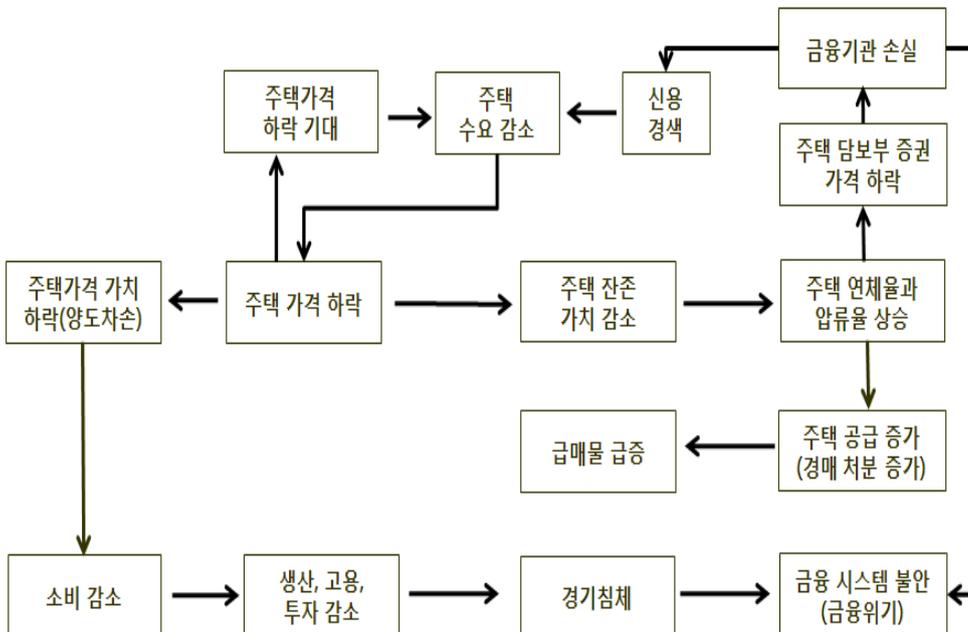
| | |
|--|----|
| [그림 1] 미국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시스템 불안 | 1 |
| [그림 2] 미국금융시스템 불안과 신용경색 심화 | 2 |
| [그림 3] 외환위기(1997년)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흐름도 | 9 |
| [그림 4]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 흐름도 | 10 |
| [그림 5] 산업생산과 비농가취업자수 추이 | 15 |
| [그림 6]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 31 |
|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33 |
| [그림 8] 우리나라 대외 증권 투자 잔액 | 36 |
| [그림 9]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국내금융·외환시장 파급경로 | 38 |
| [그림 10]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 46 |
| [그림 11] 미국 및 세계경제 회복지연 요인 | 53 |

I.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비교

1. 경제위기의 원인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달러화 외화유동성 부족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반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 붕괴와 같은 해외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영글로 색슨국가 등) 주택시장의 버블붕괴(주택가격 하락)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손상 때문이다. 미국의 주택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신용 모기지(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했고 주택연체율 상승으로 주택담보부 증권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부증권 관련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림 1] 미국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시스템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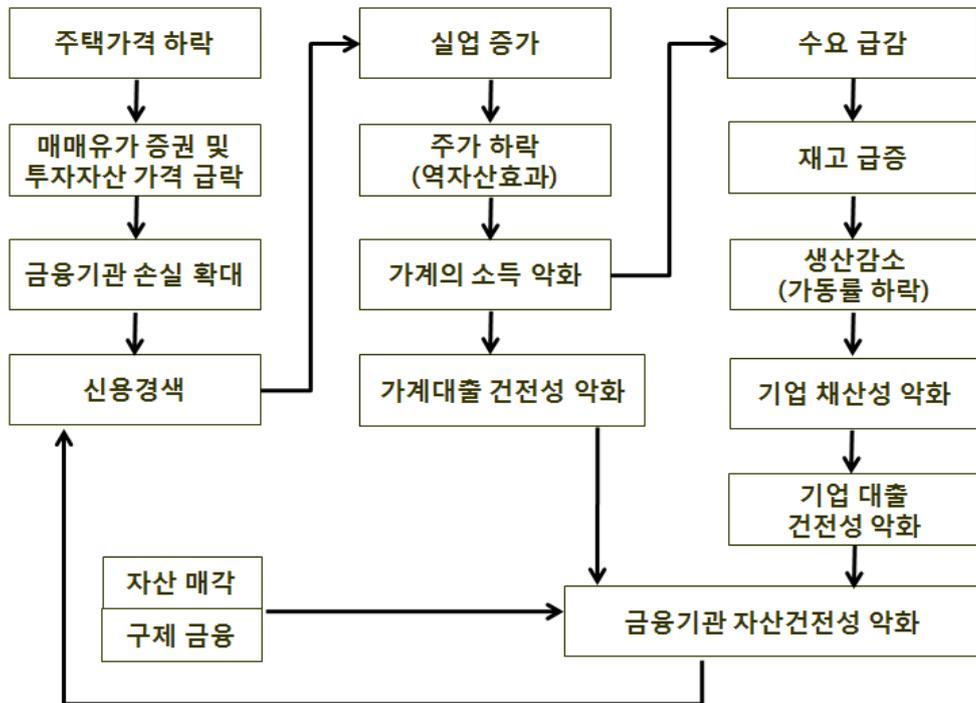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특히 모기지담보 관련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미국주가가 급락하면서 세계주가와 세계주택가격도 동시에 폭락하였고 이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전개되었다.

주택가격 및 주가 등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역자산효과(주택의 양도차손 확대로 소비 등이 위축되는 현상)도 심화되었다. 신용경색과 역자산효과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 고용, 설비투자 등이 연이어 침체를 보였다. 특히 2008년 9월 중순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되면서 2008년 4/4분기 이후 세계경제는 수출,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가 동시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림 2] 미국금융시스템 불안과 신용경색 심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부실심화로 인한 부도증가,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미흡, 외국인의 자금유출과 경상수지 적자지속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등 국내적인 요인 때문이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부터 야기된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표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원인비교

| | 글로벌 금융위기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1997년) |
|----|--|---|
| 원인 | <p>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자산버블 (주택가격) 붕괴</p> <p>해외 금융기관의 고부채화 전략 (증권화 금융상품의 리스크 관리 미흡)</p> <p>글로벌 금융기관의 손실 급증으로 신용경색</p> <p>외국인의 이머징 국가 투자자금 회수 (미국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p> | <p>국내기업 부실 심화 (과잉부채, 과잉설비, 과잉고용 등)</p> <p>국내은행 리스크 관리 미흡</p> <p>국내 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신용 경색</p> <p>외국인의 국내투자 위축 및 국내주식 매도</p>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별 경기하강 속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08년 4/4분기 들어 선진국과 경쟁국들의 소비,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동시적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선진국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재고가 빠르게 쌓이자 선진국은 생산을 축소하고 있다. 선진국의 소비 및 생산축소는 세계수입을 감소시켜 세계교역량을 위축시키며 세계교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개도국의 수출환경 또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주요국의 소매판매는 2008년 4/4분기 들어 급격히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소매판매 감소 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소매판매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2.0%, 1.6% 감소했고, 일본의 소매판매도 2008년 11월과 12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0.9%, 2.7% 감소했다. 한국의 소매판매는 2008년 11월과 12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5.4%, 4.7% 감소(2009년 1월중 3.1% 감소)했고 대만의 소매판매도 11월과 12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7.9%, 10.1% 감소했다.

[표 2] 주요국 소매 판매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 | 2008 |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4/4분기 | |
| | | | | | 11월 | 12월 |
| 한국 | 4.4 | 2.9 | 1.4 | -4.6 | -5.4 | -4.7 |
| 미국 | 0.6 | 3.6 | 1.0 | -1.2 | 0.5 | -2.0 |
| 일본 | 1.8 | 0.2 | 0.8 | -1.5 | -0.9 | -2.7 |
| 중국 | 20.6 | 22.2 | 23.2 | 20.6 | 20.8 | 19.0 |
| 대만 | 4.3 | 1.6 | -4.2 | -7.3 | -7.9 | -10.1 |
| 싱가포르 | -1.0 | -2.9 | 2.7 | -11.1 | -8.3 | -20.6 |
| 유로 | 2.8 | 2.3 | 2.0 | 0.4 | 0.4 | 0.2 |

자료: Datastream.

[표 3]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 | 2008 | | | |
|------|------|------|-------|-------|
| | 1/4 | 2/4 | 3/4 | 4/4 |
| 한국 | 10.6 | 8.6 | 5.6 | -11.5 |
| 미국 | 1.9 | 0.2 | -2.9 | -5.4 |
| 일본 | 2.3 | 1.0 | -1.4 | -10.9 |
| 중국 | 28.0 | 29.1 | 27.2 | 7.9 |
| 대만 | 12.6 | 7.1 | 0.5 | -21.2 |
| 싱가포르 | 12.6 | -5.6 | -11.0 | -8.1 |
| 유로 | 2.2 | 0.7 | -1.8 | -2.0 |
| 브라질 | 6.7 | 5.2 | 6.4 | -6.1 |
| 인도 | 7.0 | 5.3 | 4.5 | -2.4 |

자료: Datastream.

한편, 소비가 줄면서 주요국 산업생산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생산은 2008년 4/4분기 중 전년동기비 5.4%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월중 10.0% 줄었다. 일본의 산업생산은 4/4분기중 10.9% 감소했고 한국의 산업생산은 4/4분기 중 전년동기비 11.5% 감소에서 2009년 1월중에는 25.6%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크게 확대 되었다. 대만의 산업생산도 2008년 4/4분기중 21.4% 감소했다.

선진국의 소비와 생산위축으로 세계 수출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수출은 2008년 11월과 12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26.7%, 36.0% 감소했고 싱가포르 수출도 11월과 12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8.9%, 20.4% 감소했다. 중국수출은 11월과 12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2.2%, 2.8%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08년 11월과 12월중 전년동월비 각각 19.5%, 17.9% 감소한데 이어 2009년(2월까지 누계기준)중 25.6% 감소했다. 이처럼 2008년 4/4분기 이후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의 소비, 생산, 수출이 동시에 급격하게 침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주요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 | | 2008 | |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1월 | |
| | | | | | | 11월 | 12월 |
| 수출 | 한국 | 17.4 | 23.1 | 27.0 | -9.9 | -19.5 | -17.9 |
| | 미국 | 17.0 | 19.0 | 17.0 | - | 13.5 | - |
| | 일본 | 6.0 | 1.8 | 3.2 | 23.1 | -26.7 | -36.0 |
| | 중국 | 21.4 | 22.4 | 23.0 | 4.3 | -2.2 | -2.8 |
| | 싱가포르 | 11.5 | 13.2 | 11.4 | -11.0 | -8.9 | -20.4 |
| 수입 | 한국 | 28.9 | 30.5 | 42.8 | -9.0 | -15.0 | -21.6 |
| | 미국 | 11.0 | 13.9 | 14.2 | - | -2.5 | - |
| | 일본 | 10.2 | 10.9 | 21.2 | -9.5 | -14.4 | -21.5 |
| | 중국 | 28.6 | 32.4 | 25.7 | -8.9 | -18.0 | -21.3 |
| | 싱가포르 | 21.5 | 21.4 | 22.2 | -2.2 | -6.5 | -16.7 |

주: 통관기준.

자료: Datastream.

경기침체의 초기국면만을 비교해 보면 과거 1970년 이후 4번에 걸친 세계 경기 침체국면에 비해 최근의 세계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하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하강 지역(범위)도 과거 경기침체국면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에 비해 수출비중이 높은 NIEs 국가들의 수출, 생산 등의 감소 폭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경기하강 속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금융·외환시장 양상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의 금융·외환시장 지표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5]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금융·외환시장 양상 비교

| | 글로벌 금융위기 | 외환위기(1997년) |
|----------------------|---|--|
| 금융 외환 시장 양상 | 원달러 환율 급등 세계 주가(국내주가 포함) 급락 국제금리 급락(국내금리 하락) 수출감소 → 설비투자 감소 → 고용 감소 → 소비등 내수 급감 → 급격한 경기침체 | 원달러 환율 급등 국내주가 급락(동아시아 주가 급락) 국내금리 급등 수출 견조세 지속 → 대기업 연쇄 부도 → 금융기관 부실 심화 → 신용 경색 심화 → 설비투자 급감 → 고용 급감 → 소비급냉 → 급격한 경기침체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외환위기 당시 국내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락한 후 빠르게 반등세를 보인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국내주가는 급락한 후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시점과 반등양상 등이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주가의 하락폭은 대기업 경영지표의 건전성 등에 힘입어 여타 이머징국가의 주가 하락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국내금리는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국내금리 하향안정과 유동성공급 지속으로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

기 하에서 국내신용스프레드(회사채금리 - 국고채금리)는 급등세를 보인 후 횡보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에 외환위기 하에서 신용스프레드는 2분기 정도 급등 후 급락세를 보였다.

[표 6]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 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 | 1997 | | 1998 | | | | 1999 |
|------------------------|------|-------|-------|-------|-------|-------|-------|
|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주가 | 723 | 490 | 508 | 371 | 318 | 438 | 572 |
| 환율 | 898 | 1,141 | 1,606 | 1,395 | 1,325 | 1,280 | 1,199 |
| 국고채금리 (3년만기, %) | 11.7 | 13.0 | 15.0 | 16.3 | 12.0 | 8.3 | 6.9 |
| 회사채금리 (3년만기 AA-, %) | 12.1 | 17.0 | 20.7 | 17.6 | 12.9 | 9.3 | 8.3 |
| 스프레드(%p) | 0.5 | 4.0 | 5.7 | 1.2 | 0.8 | 1.0 | 1.5 |

자료: 한국은행.

[표 7]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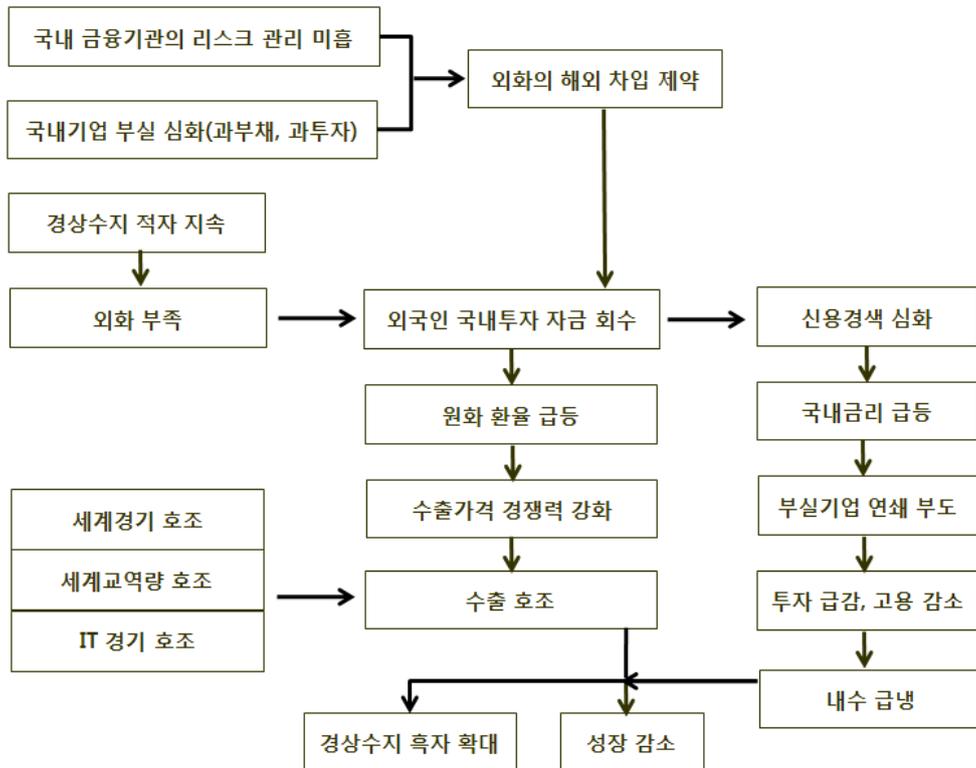
| | 2007 | 2008 | | | |
|------------------------|-------|-------|-------|-------|-------|
| | 4/4 | 1/4 | 2/4 | 3/4 | 4/4 |
| 주가 | 1,944 | 1,691 | 1,794 | 1,518 | 1,130 |
| 환율 | 921 | 956 | 1,017 | 1,063 | 1,363 |
| 국고채금리 (3년만기, %) | 5.6 | 5.2 | 5.3 | 5.9 | 4.7 |
| 회사채금리 (3년만기 AA-, %) | 6.3 | 6.4 | 6.3 | 7.2 | 8.3 |
| 스프레드(%p) | 0.7 | 1.1 | 1.0 | 1.3 | 3.6 |

자료: 한국은행.

4.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수출호조로 경기침체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경기회복 속도도 빠른 “V”자형의 경기회복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 당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어 1998년 중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6.9% 감소)을 기록했으나 IT경기호황(인터넷보급 확산과 2000년 문제 등)과 같은 대외여건 호조 및 원화가치 급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물량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국내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조기(1999년 1/4분기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 외환위기(1997년)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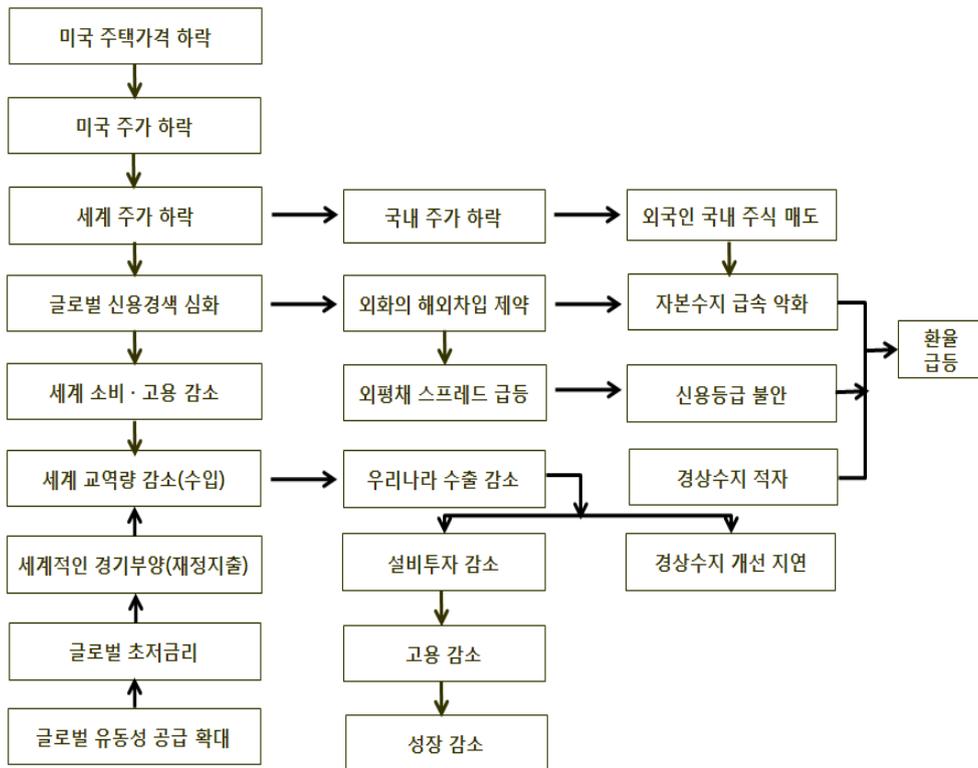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국내경제는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수출이 급감하면서 제조업생산이 위축되어 내수(고용, 소비, 투자 등 동시 침체)도 급격히 침체하는 등 경제 모든 부문이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강도(경쟁력 약한 기업의 워크아웃 등)가 상대적으로 약하여(외환위기 당시에 비교하여) 내수 하강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경기하강 초기국면만 비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당시는 수출 호조, 수입 급감으로 빠르게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어 외환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은 국제수지 불안과 해외차입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불안한 국면이 길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경제위기 발생의 영향

1. 경제구조의 변화

가. 수출구조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전 수출비중(총수출물량/GDP, 1997년 실질 기준)은 29.4%에서 2007년에는 61.3%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998년 4.0%p에서 2007년 6.6%p로 상승했다. 지출부문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수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 1995 | 1998 | 2001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제성장률 | 9.2 | -6.9 | 3.8 | 4.2 | 5.1 | 5.0 | 2.5 |
| 수출증가율 | 24.4 | 12.7 | -2.7 | 8.5 | 11.8 | 12.1 | 6.2 |
|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 4.7 | 4.0 | -1.1 | 4.3 | 6.1 | 6.6 | 3.7 |
| 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 | 56.2 | -54.2 | -29.0 | 105.5 | 124.4 | 139.8 | 150.2 |

자료: 한국은행.

외환위기 당시의 수출급증 현상은 국내기업들의 내수와 수출의 매출증가율 측면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업의 내수매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수출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다. 외환위기 당시 수출매출액 증가율은 1997년 19.2%에서 1998년에는 29.6%로 상승한 반면에 내수매출액은 1997년 7.2%에서 1998년에는 1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외환위기와 최근의 내수와 수출매출 비교

(단위: %)

| | 외환위기 전후 | | | 최근 | |
|-----|---------|------------|-------------|------|------|
| | 1996 | 1997 | 1998 | 2006 | 2007 |
| 매출액 | 10.3 | 11.0 | 0.7 | 6.3 | 9.3 |
| 수출 | 7.3 | 19.2(34.3) | 29.6(45.1) | 8.0 | 8.9 |
| 내수 | 11.7 | 7.2(65.7) | -14.9(54.9) | 4.8 | 9.7 |

주: 1) () 안의 수치는 매출액 대비 수출·내수 비중.

2) 최근(2006년, 2007년) 수출과 내수매출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매출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구조 변화중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비중 및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구조는 대미 수출비중은 크게 하락(1998년 : 35.3% → 2008년 11.0%)한 반면에 대중국 수출비중은 크게 상승(1998년 : 0.6% → 2008년 : 21.7%)하였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질별로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부진은 우리나라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업종별 수출구조는 중화학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진(1998년 : 73.4% → 2008년 91.7%) 반면에 경공업과 반도체(1998년 : 12.9% → 2008년 7.8%) 수출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외환위기와 최근의 지역별 수출입 비중 비교

(단위: %)

| | | 미국 | EU | 일본 | 중국 | 중남미 | 중동 | 싱가포르 |
|----|--------------|------|------|------|------|-----|------|------|
| 수출 | 외환위기 (1998년) | 35.3 | 14.7 | 19.8 | 0.6 | 2.6 | 4.6 | 2.2 |
| | 2008년 | 11.0 | 13.8 | 6.7 | 21.7 | 7.9 | 6.3 | 3.9 |
| 수입 | 외환위기 (1998년) | 24.6 | 12.6 | 30.7 | 2.7 | 2.8 | 6.9 | 1.1 |
| | 2008년 | 8.8 | 9.2 | 14.0 | 17.7 | 3.2 | 23.4 | 1.9 |

자료: 관세청, 무역협회.

[표 11]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수출 비중 비교

(단위: %)

| | | 중화학 | IT | 화공품 | 철강 금속 | 선박 및 해양구조물 | 자동차 | 반도체 |
|----|--------------|------|------|------|----------|---------------|-----|------|
| 수출 | 외환위기 (1998년) | 73.4 | 22.8 | 7.1 | 8.9 | 6.2 | 7.5 | 12.9 |
| | 2008년 | 91.7 | 24.8 | 10.9 | 9.3 | 10.2 | 8.3 | 7.8 |

자료: 무역협회

나. 생산구조

GDP대비 수출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생산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 제조업생산 비중은 GDP대비 27.3%(1998년)에서 27.9%(2008년)로 상승했다. 수출과 제조업 생산의 연계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수출 감소는 곧바로 제조업의 생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조업생산 위축은 그동안 설비투자과 고용을 주도해온 대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켜 내수가 동반 부진해질 수 있는 취약한 산업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부진이 설비투자과 고용 등 내수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표 12]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제구조 비교

(단위: %)

| | 농림어업 | 제조업 | 전기·가스 ·수도 | 건설업 | 서비스업 | 최종소비 | 총고정 투자 |
|-----------------|------|------|--------------|------|------|------|-----------|
| 외환위기 (1998년) | 5.1 | 27.3 | 2.3 | 10.6 | 54.2 | 62.1 | 30.3 |
| 2007년 | 3.0 | 27.9 | 2.3 | 8.9 | 57.6 | 69.2 | 28.8 |

주: 총부가치대비(%), 최종소비와 총고정투자는 경상GDP대비(%)

자료: 한국은행.

다. 고용구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로 상용직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에 임시일용직 비중이 10.8%(1995년)에서 18.2%(2005년)로 증가하면서 고용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수출감소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기업의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청년층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자 고용상황, 특히 청년층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안정성 악화는 경기침체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신규대졸채용 여건 또한 외환위기 당시 못지 않게 악화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3]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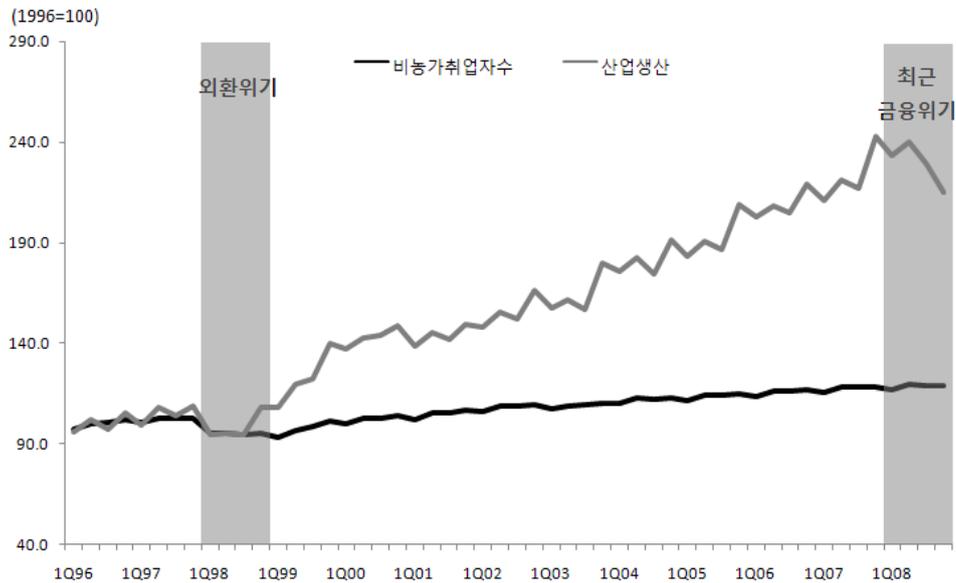
| | 1995 | 2000 | 2005 | 증 감 | |
|------------------|--------------|--------------|--------------|---------------|-------------|
| | | | | 1995~2000 | 2000~2005 |
| 피용자 | 11,387(66.2) | 10,749(64.5) | 12,381(70.3) | - 638[- 5.6] | 1,633[15.2] |
| 상용직 | 9,538(55.5) | 8,515(51.1) | 9,171(52.1) | -1,023[-10.7] | 656[7.7] |
| 임시·일용직 | 1,849(10.8) | 2,234(13.4) | 3,211(18.2) | 385[20.8] | 977[43.7] |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5,810(33.8) | 5,928(35.5) | 5,220(29.7) | 118[2.0] | -707[-11.9] |
| 합 계 | 17,197(100) | 16,677(100) | 17,602(100) | - 520[- 3.0] | 925[5.5] |

주: 1) ()안은 구성비.

2) []안은 기간중 증감률.

자료: 통계청.

[그림 5] 산업생산과 비농가취업자수 추이



주: 전년동분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부문별 하강속도

가. 제조업생산의 부문별 하강속도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세계적 현상)와 외환위기(동아시아지역에 한정)의 원인이 차이가 있고 국내경기에 미치는 파급경로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기간의 경제지표 움직임을 비교하여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것(경기하강 속도와 경기침체 기간 등)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4/4분기에 나타난 부문별 경제지표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연간 경제지표를 단순히 비교하여 경기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기간의 불일치(경기침체 초기단계국면기간 비교의 불일치 등)라는 제약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당시와 환율불안, 자본시장의 침체, 고용 및 투자의 급랭 등 유사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경제지표들의 하강속도, 하강경로, 하강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략적이거나 향후 경기의 하강속도, 하강기간 등의 추세적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비 6.5% 감소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산업생산은 12.3%(2008년 4/4분기, 2009년 1월중 27.0% 감소, 레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내외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과 비교) 감소하여 최근의 제조업 경기하강 속도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별로는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의 산업생산은 0.2%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산업생산은 13.8%(2008년 4/4분기) 감소하여 대기업의 경기하강 속도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당시 18.5%가 감소한 중소기업 생산은 최근 들어 9.4%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기는 기업들의 연쇄도산(기업들의 과잉부채와 과잉투자 등)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4/4분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업종의 감소 폭이 더

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09년 상반기중 경기하강 속도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 외환위기와 최근의 산업형태 및 규모별 산업 생산

(단위: 전년동기비, %)

| | 제조업 산업생산 | 단계별 | | | 산업형태별 | | | 규모별 | | |
|-----------------|-------------|-------|-------|------|----------|----------|----------|---------|----------|------|
| | | 자본재 | 중간재 | 소비재 | 기초 소재 | 가공 조립 | 생활 관련 | 대기 업 | 중소 기업 | |
| 외환위기 (1998년) | -6.5 | -11.9 | -15.4 | 0.4 | -17.1 | -11.9 | -0.3 | 0.2 | -18.5 | |
| 2008 | 1/4분기 | 10.7 | 4.1 | 4.6 | 14.4 | 6.1 | 4.1 | 16.3 | 15.1 | 2.4 |
| | 2/4분기 | 9.0 | 2.4 | 4.4 | 11.2 | 6.2 | 2.4 | 14.5 | 12.8 | 1.0 |
| | 3/4분기 | 5.5 | 4.0 | 10.5 | 4.8 | 4.6 | 4.0 | 7.0 | 6.5 | 2.6 |
| | 4/4분기 | -12.3 | -10.5 | 1.8 | -16.6 | -9.0 | -10.5 | -14.4 | -13.8 | -9.4 |
| | 연간 | 2.8 | -0.2 | 5.1 | 2.7 | 1.7 | -0.2 | 4.9 | 4.4 | -1.1 |

자료: 통계청.

단계별 산업생산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는 자본재와 중간재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는 자본재와 소비재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활동을 비교해 보면 2008년 4/4분기 이후는 선진국의 소득감소로 내구재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기타 운송 장비를 제외한 전업종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동분기대비 컴퓨터 사무용기기(-23.4%), 전기기계 변환장치(-23.0%), 전자부품영상통신(-21.1%)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구조 별로는 최근의 경공업 생산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완만하나 중화학공업 특히 IT 관련 업종의 생산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형태 별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기초소재, 가공조립업종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산업생산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음식료 | 섬유 | 석유 정제 | 화학 | 고무 플라 스틱 | 비금속 광물 | 1차 금속 | 기계 | 컴퓨터 사무용 기기 | 전기 기계 변환 장치 | 전자 부품 영상, 통신 | 기타 운송 장비 | |
|-----------------|-------|------|----------|-------|----------------|-----------|----------|-------|------------------|----------------------|-----------------------|----------------|------|
| 외환위기 (1998년) | -14.7 | -8.6 | -8.9 | -1.2 | -20.9 | -23.2 | -12.1 | -31.3 | 5.3 | -12 | 1.3 | 49.7 | |
| 2008 | 1/4분기 | 2.6 | 2.7 | -7.7 | 7.2 | 3.8 | 7.1 | 5.2 | 5.4 | -4.6 | 4.3 | 19.5 | 9 |
| | 2/4분기 | 0.1 | -0.4 | -7.5 | 4.3 | 1.6 | -3.8 | 2.9 | 2.8 | -6.3 | 3.6 | 15.6 | 21.7 |
| | 3/4분기 | 2.3 | -1.1 | -5.8 | 3.9 | -0.6 | 8.6 | 7.4 | 5.5 | -7.9 | 1.3 | 8.9 | 29 |
| | 4/4분기 | -5.3 | -6.8 | -9.6 | -11.7 | -14.1 | -12.4 | -13.6 | -6.4 | -23.4 | -23.0 | -21.1 | 33.4 |
| | 11월 | -9.8 | -10.1 | -13.3 | -18.3 | -16.4 | -12.1 | -14.0 | -10.2 | -29.6 | -18.3 | -15.7 | 29.0 |
| | 12월 | -4.0 | -3.2 | -10.7 | -17 | -23 | -24.4 | -24.8 | -9.3 | -35.0 | -30.1 | -39.3 | 36.2 |
| | 연간 | 0.2 | -1.4 | -7.7 | 0.7 | -2.6 | 1.1 | 0.4 | 1.7 | -10.7 | -3.8 | 4.2 | 23.4 |

자료: 통계청.

나. 제조업 재고순환 및 생산능력

최근의 제조업 재고순환¹⁾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온 IT관련 업종, 기계 및 화학업종의 재고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4분기 중 주요 업종의 재고순환을 보면 컴퓨터사무용기기(-16.7%), 전기기계 변화장치(-25.2%), 전자부품영상통신(-12.3%)업종의 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은 설비투자 부진(해외투자 확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생산능력지수가 감소하여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증가 압박이 중화학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1) 재고순환은 출하증감률에서 재고증감률을 차감하였다.

[표 16]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재고순환(출하증감률-재고증감률) 비교

(단위: %)

| | 제조업 | 음식료 | 섬유 | 석유 제품 | 화학 제품 | 고무 플라 스틱 | 1차 금속 | 기계 | 컴퓨터 사무용 기기 | 전기 기계 변환 장치 | 전자 부품 영상 통신 | 자동차 | 기타 운송 장비 | |
|-----------------|-------|------|-------|----------|----------|----------------|----------|-------|------------------|----------------------|----------------------|-------|----------------|------|
| 외환위기 (1998년) | -38.9 | -6.5 | 4.7 | -11.3 | -10.9 | -15.4 | -14.4 | -27.5 | 6.3 | -4.1 | 24.4 | -64.7 | 30.6 | |
| 2008 | 1/4분기 | -1.7 | -1.4 | 3.4 | 21.2 | 8.9 | 2.2 | 13.3 | 6.5 | -210.1 | 1.3 | -3.5 | 1.4 | -3.4 |
| | 2/4분기 | -0.3 | -10.3 | 3.2 | -3.0 | 4.8 | 3.8 | 5.7 | -1.6 | -408.8 | -11.0 | -12.3 | -0.6 | 2.9 |
| | 3/4분기 | 0.8 | -15.1 | 6.4 | 24.5 | -14.8 | 0.7 | 3.9 | -4.6 | -492.9 | -8.0 | -16.4 | 0.0 | -6.7 |
| | 4/4분기 | 9.1 | -25.7 | -9.8 | 24.6 | -28.3 | -14.7 | -25.4 | -12.3 | -16.7 | -25.2 | -12.3 | 11.1 | -3.4 |

주: 부호가 마이너스 인 것은 출하보다 재고가 상대적으로 급증함을 시사.

자료: 통계청.

품목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추이를 보면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생산능력 지수가 2002년(100)보다 42.4%, 가죽·신발은 33.9%, 의복은 16.4%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전기전자는 75.5%(반도체 248.1%), 선박건조 24.6%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전기전자, 선박, 일반기계 업종이 설비투자를 주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7] 우리나라 품목별 제조업 생산능력¹⁾ 지수 추이

| | 2002(A) | 2007(B) | B-A | | 2002(A) | 2007(B) | B-A |
|----------------------|---------|---------|-------|-----------|---------|---------|-------|
| 컴퓨터및주변장치 | 100.0 | 57.6 | -42.4 | 전기전자 | 100.0 | 175.5 | 75.5 |
| 가죽/가방/신발 | 100.0 | 66.1 | -33.9 | (반도체) | 100.0 | 348.1 | 248.1 |
| 의복/액세서리 | 100.0 | 83.6 | -16.4 | (전자부품) | 100.0 | 173.6 | 73.6 |
| 의료/정밀/광학시계 | 100.0 | 90.1 | -9.9 | (영상및음향기기) | 100.0 | 161.8 | 61.8 |
| 목재/나무 | 100.0 | 101.5 | 1.5 | 특수기계 | 100.0 | 138.1 | 38.1 |
| 펄프/종이 | 100.0 | 103.2 | 3.2 | 선박건조 | 100.0 | 124.6 | 24.6 |
| 식료품 | 100.0 | 107.8 | 7.8 | 일반기계 | 100.0 | 122.0 | 22.0 |
| 기타 제조업 ²⁾ | 100.0 | 47.2 | -52.8 | 화공품 | 100.0 | 121.3 | 21.3 |
| 제조업 전체 | 100.0 | 122.5 | 22.5 | | | | |

주: 1)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정상적인 조업조건(노동력, 표준조업 시간 및 1일표준조업일수, 설비효율, 원자재공급 등)하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

2) 귀금속/장식용품/악기/운동용구 등.

자료: 통계청.

다. 제조업 업종별가동률지수

최근의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는 2008년 12월중 79.1(2009년 1월 73)로 외환위기 당시 85.0(1998년 연간기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사무용기기(67.8), 전자부품영상통신업종(56.8), 1차 금속(74.4) 등이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에 자동차(80.1)와 기타운송장비(106.1)의 가동률지수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가동률지수가 2008년 11월중 89.1에서 2009년 1월에는 73.0으로 2개월 사이에 16.1포인트가 급락했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11월 이후 매우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18]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가동률 지수 비교

(2005=100)

| | 제조업 | | | | | | | | | | | | | | |
|-----------------|-------|-------|----------|-------|------------|-----------|----------|-------|-----------------|----------------------|-----------------------|------|----------------|-------|-------|
| | 음료 | 섬유 | 섬유 정제 | 화학 | 고무 플라스틱 | 비금속 광물 | 1차 금속 | 기계 | 컴퓨터 사무 기기 | 전기 기계 변환 장치 | 전자 부품 영상, 통신 | 자동차 | 기타 운송 장비 | | |
| 외환위기 (1998년) | 85.0 | 94.2 | 119.3 | 93.9 | 92.2 | 82.6 | 94.3 | 86.2 | 66.1 | 189.1 | 84.9 | 85.9 | 71.0 | 63.0 | |
| 2008 | 1/4분기 | 99.0 | 99.0 | 95.2 | 98.5 | 101.9 | 96.6 | 83.6 | 100.4 | 104.3 | 117.2 | 94.5 | 98.0 | 106.4 | 101.3 |
| | 2/4분기 | 102.7 | 100.4 | 102.8 | 95.0 | 101.3 | 104.1 | 101.9 | 103.3 | 112.7 | 88.7 | 98.3 | 97.7 | 112.3 | 110.3 |
| | 3/4분기 | 95.7 | 98.3 | 96.9 | 97.0 | 99.9 | 95.6 | 96.3 | 99.7 | 97.1 | 90.5 | 96.6 | 97.3 | 79.8 | 98.02 |
| | 4/4분기 | 90.7 | 96.0 | 96.6 | 100.1 | 86.9 | 89.6 | 97.5 | 84.9 | 93.0 | 76.9 | 95.4 | 77.1 | 104.3 | 114.7 |
| | 11월 | 89.2 | 91.0 | 94.4 | 98.3 | 77.9 | 90.8 | 100.4 | 81.9 | 91.8 | 70.4 | 93.5 | 76.8 | 104.5 | 110.2 |
| | 12월 | 79.2 | 98.2 | 87.5 | 102.0 | 80.2 | 74.3 | 83.8 | 74.4 | 87.8 | 67.8 | 89.2 | 56.8 | 80.1 | 121.2 |
| | 연간 | 97.1 | 98.4 | 97.9 | 97.6 | 96.8 | 96.5 | 95.0 | 97.1 | 101.8 | 93.3 | 96.2 | 92.5 | 100.7 | 106.1 |

자료: 통계청.

라. 소비재 판매

2008년 4/4분기 소비재판매는 전년동기비 4.6%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1998년 16.3% 감소)보다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내구재판매(34.9% 감소)가 급감하는 가운데 자동차판매(62.7% 감소)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그러나 2008년 4/4분기 중 내구재판매는 11.3% 감소하였고 자동차의 경우 23.7% 감소(2008년 1월중 22.6%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 폭이 더욱 커진 11월과 12월중 자동차 판매는 각각 39.4%, 23.8% 감소(2009년 1월중 30.9% 감소)했는데 이같은 감소 폭도 외환위기 당시(62.7% 감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이다.

[표 19] 외환위기와 최근의 소비재 판매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 소비재판매 | | | | |
|-----------------|-------|-------|-------|-------|-------|------|
| | | 내구재 | 자동차 | 준내구재 | 비내구재 | |
| 외환위기 (1998년) | | -16.3 | -34.9 | -62.7 | -10.7 | -9.0 |
| 2008 | 1/4분기 | 4.4 | 9.5 | 9.6 | 3.8 | 1.9 |
| | 2/4분기 | 2.9 | 8.7 | 7.1 | -2.1 | 0.3 |
| | 3/4분기 | 1.4 | 0.0 | -4.9 | 0.6 | 1.2 |
| | 4/4분기 | -4.6 | -11.3 | -22.6 | -9.9 | -0.4 |
| | 11월 | -5.4 | -14.1 | -39.3 | -6.8 | 0.4 |
| | 12월 | -4.7 | -19.8 | -23.7 | -13.6 | 1.9 |
| | 연간 | 0.9 | 1.5 | -3.0 | -1.1 | 0.7 |

자료: 통계청.

마. 설비투자

외환위기와 최근의 설비투자 추계치를 보면 최근의 설비투자 추계치는 전년동기비 16.8%(2008년 4/4분기)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1998년 37.7% 감소) 보다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12월중 설비투자 추계치의 감소 폭이 24.1%로 시간이 지날수록 설비투자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당시 못지 않게 감소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20] 외환위기와 최근의 설비투자 관련 지표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 설비투자 추계치 | 기계류 내수출하 (선박제외) | 내수용 자본재수입 | 기계류 수입액 |
|-----------------|-------|-------------|--------------------|--------------|---------|
| 외환위기 (1998년) | | -37.7 | -37.4 | -45.3 | -51.0 |
| 2008 | 1/4분기 | -0.6 | 1.3 | 37.5 | 12.0 |
| | 2/4분기 | 0.1 | 0.8 | 40.4 | 8.1 |
| | 3/4분기 | 6.1 | 6.4 | 55.0 | 20.0 |
| | 4/4분기 | -16.8 | -7.6 | 3.3 | -11.5 |
| | 11월 | -17.5 | -10.0 | 2.1 | -20.6 |
| | 12월 | -24.1 | -10.6 | -13.3 | -20.7 |
| | 연간 | -3.0 | 0.0 | 32.5 | 6.4 |

자료: 통계청.

바. 건설투자

외환위기와 최근의 건설 관련 투자를 비교해 보면 최근 건설 관련 투자는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하락속도가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2008년 4/4분기) 건설기성액(-2.2%)과 건설수주(-3.7%)의 감소 폭은 외환위기 당시의 건설기성액(-20.6%) 및 건설수주(-42.6%) 감소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는 금리가 급등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건설활동이 최근보다 상당히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표 21] 외환위기와 최근의 건설관련 지표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건설기성액 | 건설수주 | | | | | |
|-----------------|-------|-------|-------|-------|-------|-------|-------|
| | | | 공공 | 민간 | 건축 | 토목 | |
| 외환위기 (1998년) | -20.6 | -42.6 | -21.4 | -57.6 | -51.8 | -30.7 | |
| 2008 | 1/4분기 | 5.8 | -3.9 | 20.0 | -15.0 | 5.7 | -25.6 |
| | 2/4분기 | 6.5 | -6.1 | 18.6 | -5.9 | -6.8 | -3.9 |
| | 3/4분기 | 11.1 | -22.8 | 3.3 | -32.5 | -37.6 | 16.7 |
| | 4/4분기 | -2.2 | -3.7 | 6.4 | -11.9 | -23.1 | 53.5 |
| | 11월 | -1.3 | -35.4 | -16.6 | -41.4 | -47.7 | -1.3 |
| | 12월 | -8.7 | 33.5 | 42.3 | 25.2 | 14.3 | 81.9 |
| | 연간 | 4.9 | -8.2 | 11.0 | -15.3 | -16.7 | 15.4 |

자료: 통계청.

사. 수출·입

최근의 지역별 수출은 중동 및 중남미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환위기 당시는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다. 2008년 4/4분기 국가별 수출증가율은 전년동분기대비 중국(-23.9%), EU(-16.7%), 일본(-11.8%), 미국(-6.0%)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은 수출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수출부진국면이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2] 외환위기와 최근의 지역별 수출액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 전지역 | 미국 | EU | 일본 | 중국 | 중남미 | 중동 |
|-----------------|-------|-------|-------|-------|-------|-------|------|------|
| 외환위기 (1998년) | | -2.8 | 5.5 | 7.7 | -17.2 | -12.0 | 2.3 | 29.0 |
| 2008 | 1/4분기 | 17.4 | -2.6 | 16.0 | 12.2 | 20.7 | 16.4 | 35.0 |
| | 2/4분기 | 23.1 | 5.4 | 6.4 | 16.8 | 33.7 | 42.6 | 37.3 |
| | 3/4분기 | 27.0 | 9.6 | 14.7 | 14.5 | 21.4 | 51.5 | 45.0 |
| | 4/4분기 | -9.9 | -6.0 | -16.7 | -11.8 | -23.9 | 9.0 | 25.0 |
| | 11월 | -19.5 | -14.3 | -20.9 | -17.7 | -33.3 | -2.0 | 24.6 |
| | 12월 | -17.9 | -9.4 | -34.3 | -20.1 | -35.4 | 5.7 | 22.2 |
| | 연간 | 13.6 | 1.3 | 4.3 | 7.1 | 11.5 | 29.0 | 35.1 |

자료: 관세청, 무역협회.

업종별 수출물량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중화학 업종의 수출물량이 21.9%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중화학 업종의 수출물량이 18.9%나 감소했다. 세계적인 내구재소비 침체와 투자위축 등이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주요요인이다.

[표 23] 외환위기와 최근의 업종별 수출입물량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수출 물량 | 수출 | | | | | | | 수입 물량 | | | |
|-----------------|----------|-------|-------|-------|-------|-------|-------|-------|----------|-------|-------|-------|
| | | 경공업 | 중화학 | 화공품 | 철강 | 기계 | 승용차 | 반도체 | 원자재 | 자본재 | | |
| 외환위기 (1998년) | 18.9 | 9.9 | 21.9 | 25.8 | 33.2 | 33.1 | 8.1 | 57.6 | -24.4 | -15.6 | -35.7 | |
| 2008 | 1/4분기 | 15.9 | 3.6 | 19.7 | 12.8 | 5.6 | 30.4 | 3.4 | 92.5 | 6.7 | 5.7 | 14.4 |
| | 2/4분기 | 11.7 | -1.1 | 15.1 | 6.0 | 10.8 | 27.6 | -5.5 | 66.0 | 3.3 | -0.3 | 15.9 |
| | 3/4분기 | 9.8 | 4.2 | 10.6 | 2.8 | 16.1 | 24.0 | -18.1 | 30.1 | 9.2 | 7.6 | 21.2 |
| | 10월 | 4.7 | 3.7 | 2.5 | 1.1 | -0.1 | 9.6 | -16.9 | 6.5 | -7.7 | -4.7 | -1.4 |
| | 11월 | -15.4 | -13.6 | -18.9 | -26.6 | -17.0 | -21.8 | -11.0 | -19.2 | -19.4 | -15.5 | -18.1 |

자료: 한국은행.

교역조건은 수입가격 상승 폭이 수출가격 상승 폭보다 커서 외환위기 당시 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3.9% 하락한 순상품 교역조건이 2008년 4/4분기중 13.2% 하락했다. 2008년 4/4분기중 수출단가는 8.4% 하락한 반면에 수입 단가는 5.6% 상승하였다. 이는 첫째 세계 교역여건 악화로 수출가격은 빠르게 하락한데 반해 수입가격은 하방경직성 등으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제품은 중저가의 범용수출제품 비중이 높는데 이들 제품의 가격은 수요위축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순상품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더욱 악화시켜 고용과 투자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4] 외환위기와 최근의 순상품 교역조건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순상품 교역조건 | 수출 단가 | 수출 | | | | | 수입 단가 | |
|-----------------|-------------|----------|-------|-------|-------|-------|-------|----------|------|
| | | | 중화학 | 철강 | 기계 | 승용차 | 반도체 | | |
| 외환위기 (1998년) | -3.9 | -20.3 | -22.6 | -15.9 | -25.9 | -13.4 | -45.1 | -17.0 | |
| 2008 | 1/4분기 | -16.2 | 2.1 | -3.3 | 5.3 | 1.1 | 0.9 | -58.4 | 21.6 |
| | 2/4분기 | -12.7 | 10.9 | 3.5 | 14.9 | 5.9 | 2.2 | -44.1 | 25.9 |
| | 3/4분기 | -15.3 | 10.5 | 3.3 | 20.8 | 3.9 | 1.8 | -39.1 | 29.0 |
| | 10월 | -14.9 | -1.7 | -3.5 | 25.7 | 0.7 | -2.1 | -39.0 | 15.4 |
| | 11월 | -9.0 | -8.6 | -6.4 | 10.2 | 3.1 | -4.8 | -36.3 | 0.4 |

주: 기간별 평균값.

자료: 한국은행.

외환위기와 최근의 수입추이를 비교해 보면 최근의 수입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감소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수입은 9.0% 감소(2008년 4/4분기)하여 외환위기 당시(35.5% 감소)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최근의 내수하락 속도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는 내수 급랭으로 내수용 수입의 감소 폭(48.7% 감소)이 수출용 수입 감소 폭(10.9% 감소)보다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수용 수입감소 폭(4.2% 감소)보다 수출용수입 감소 폭(16.1% 감소)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내수 침체 보다는 수출침체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표 25] 외환위기와 최근의 용도별 수입액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전체수입 | 수출용수입 | | | 내수용수입 | | | |
|-----------------|-------|-------|-------|-------|-------|-------|-------|-------|
| | | 원자재 | 자본재 | | 원자재 | 자본재 | | |
| 외환위기 (1998년) | -35.5 | -10.9 | -17.7 | 2.1 | -48.7 | -45.3 | -53.1 | |
| 2008 | 1/4분기 | 28.9 | 33.8 | 44.7 | 15.4 | 25.8 | 37.5 | 11.9 |
| | 2/4분기 | 30.5 | 34.6 | 44.6 | 17.4 | 27.8 | 40.4 | 11.8 |
| | 3/4분기 | 42.8 | 50.7 | 68.4 | 20.2 | 37.3 | 55.0 | 16.1 |
| | 4/4분기 | -9.0 | -16.1 | -11.9 | -22.3 | -4.2 | 3.3 | -12.1 |
| | 11월 | -15.0 | -23.1 | -18.8 | -30.7 | -9.2 | 2.1 | -18.5 |
| | 12월 | -21.6 | -32.6 | -31.2 | -34.0 | -14.7 | -13.3 | -20.9 |
| | 연간 | 22.0 | 24.1 | 34.7 | 6.4 | 20.5 | 32.5 | 6.3 |

주: 통관기준.

자료: 관세청, 무역협회.

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상수지를 비교해 보면 최근의 경상수지 개선속도는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경상수지는 75.2억 달러 흑자(2008년 4/4분기, 연율 300.8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

(403.7억 달러 흑자, 1998년)보다는 흑자 전환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경상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11.7%인 반면 최근의 경상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2008년 4/4분기 경상수지 흑자 연율치 / 2008년 경상GDP추정치)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환위기 당시 소폭이나마 흑자를 보였던 자본수지(20.4억 달러 흑자)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적자(2008년 중 자본수지 509.3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본수지의 대규모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 내수회복 지연,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잠재부실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경상수지가 빠르게 개선된 가운데 자본수지의 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고가 급증하여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었던 점이 최근 외환시장과의 차이점이다.

[표 26]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상수지 비교

(단위: 억달러)

| | | 경상수지 | | | | 경상이전 |
|-----------------|-------|-------|-------|--------|-------|------|
| |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 |
| 외환위기 (1998년) | | 403.7 | 416.7 | 10.2 | -56.4 | 33.2 |
| 2008 | 1/4분기 | -52.1 | -12.2 | -50.7 | 16.9 | -6.1 |
| | 2/4분기 | -1.3 | 57.2 | -42.7 | -6.5 | -9.4 |
| | 3/4분기 | -85.8 | -34.8 | -56.9 | 13.6 | -7.7 |
| | 4/4분기 | 75.2 | 49.7 | -17.0 | 27.1 | 15.5 |
| | 연간 | -64.1 | 59.9 | -167.3 | 51.1 | -7.7 |

자료: 한국은행.

[표 27] 외환위기와 최근의 자본수지 비교

(단위: 억달러)

| | 자본 수지 | 직접투 자수지 | | | 증권투 자수지 | | | 기타 투자 | | |
|-----------------|----------|------------|---------|----------|------------|---------|----------|------------|---------|----------|
| | | (내국인) | (외국인) | | (주식) | (채권) | | (대출 차입) | | |
| 외환위기 (1998년) | 20.4 | 51.4 | (-42.0) | (93.3) | 171.0 | (118.0) | (-26.1) | -113.8 | (-86.2) | |
| 2008 | 1/4분기 | 4.0 | -47.9 | (-41.2) | (-6.7) | -198.6 | (-176.1) | (76.2) | 164.9 | (140.3) |
| | 2/4분기 | -46.7 | -29.1 | (-27.0) | (-2.1) | 126.6 | (-78.2) | (138.1) | -67.2 | (-24.4) |
| | 3/4분기 | -48.5 | -22.8 | (-39.2) | (16.3) | -302.5 | (-108.6) | (-15.3) | 135.2 | (88.7) |
| | 4/4분기 | -418.1 | -6.1 | (-20.6) | (14.5) | -163.7 | (14.0) | (-3.8) | -338.9 | (-483.0) |
| | 연중 | -509.3 | -105.9 | (-128.0) | (22.0) | -538.2 | (-348.9) | (195.2) | -106.0 | (-238.4) |

자료: 한국은행.

자. 부문별 경기종합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경기 하강속도와 외환위기 당시의 국내 경기 하강속도를 비교해 볼 때 수출부문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내수부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8년 1/4분기중 5.3% 감소, 2/4분기중 7.9% 감소, 3/4분기중 8.1% 감소, 4/4분기중 6.0% 감소로 1988년 3/4분기를 바닥으로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1989년 1/4분기중 5.9% 성장세를 보였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최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한 후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의 국내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8년 4/4분기중 3.4% 감소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중 국내경제 감소 폭은 2008년 4/4분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1월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외 경제지표가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급격한 경기침체를 지지

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일제히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경기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표 28] 외환위기 이후 지출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 | 1997 | | 1998 | | | | 1999 |
|--------|-------|-------|-------|-------|-------|-------|------|
|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경제성장률 | 5.1 | 2.8 | -5.3 | -7.9 | -8.1 | -6.0 | 5.9 |
| 설비투자 | -14.2 | -26.2 | -41.1 | -48.4 | -45.0 | -33.1 | 10.6 |
| 건설투자 | 2.2 | 4.2 | -4.4 | -9.8 | -15.8 | -16.4 | -8.8 |
| 수출(물량) | 26.7 | 23.0 | 25.6 | 12.9 | 8.6 | 6.3 | 8.6 |

자료: 한국은행.

[표 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출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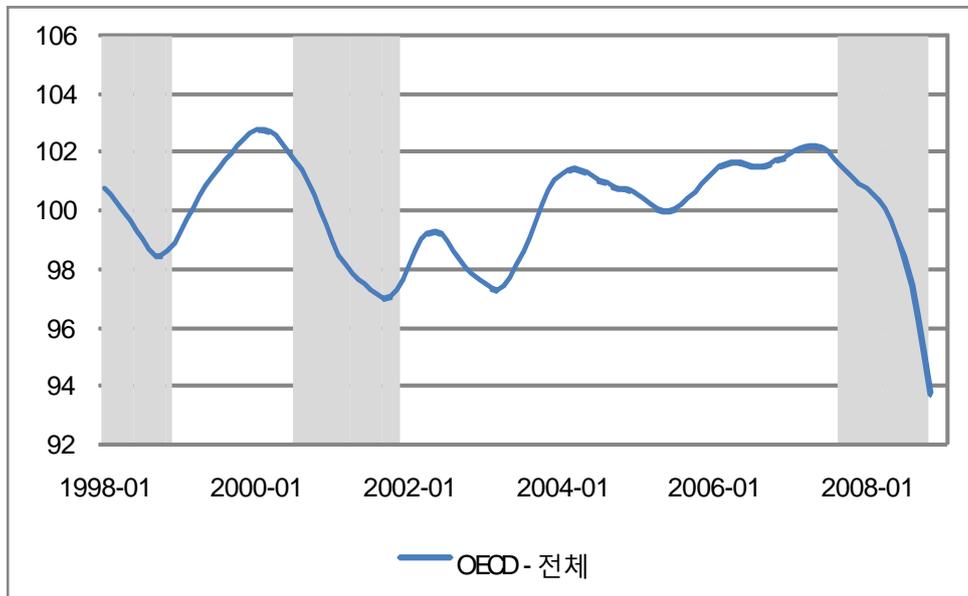
| | 2007 | 2008 | | | |
|--------|------|------|------|------|-------|
| | 4/4 | 1/4 | 2/4 | 3/4 | 4/4 |
| 경제성장률 | 5.7 | 5.8 | 4.8 | 3.8 | -3.4 |
| 설비투자 | 6.5 | 1.4 | 0.7 | 4.7 | -14.0 |
| 건설투자 | 0.4 | -1.1 | -1.2 | -1.3 | -6.1 |
| 수출(물량) | 17.0 | 11.8 | 12.5 | 9.4 | -7.2 |

자료: 한국은행.

이외에도 OECD경기선행지수(2008년 12월중)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세계경기의 빠른 하강세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OECD경기선행지

수의 빠른 하락세도 2009년 상반기중 국내경기의 급락세 예상의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9년 상반기 중 국내경기하강 속도는 2008년 4/4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빨라지면서 외환위기 못지 않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급락 후 급등하는 “V”자형의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세계교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침체로 급락 후 회복하는 “L”자형의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그림 6]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III. 경제위기와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여건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당시의 우리나라 대외여건을 비교해 보면 최근(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외여건이 외환위기 당시의 대외여건보다 크게 악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외환위기 전후의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외환위기 당시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은 3.2%(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성장률)로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동시에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OECD자료에 의하면 2008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비 2.6% 성장한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이 4/4분기 들어 1.1%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1970년 이후 세계경제는 1973년(1차석유 위기), 1979년(2차석유 위기), 1990년(선진국의 신용수축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계동시 불황) 그리고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의 총 4번의 세계적인 불황을 경험했는데 금번의 세계동시불황은 부동산가격 장기하락과 신용경색이 동반된 경기침체로 대공황(192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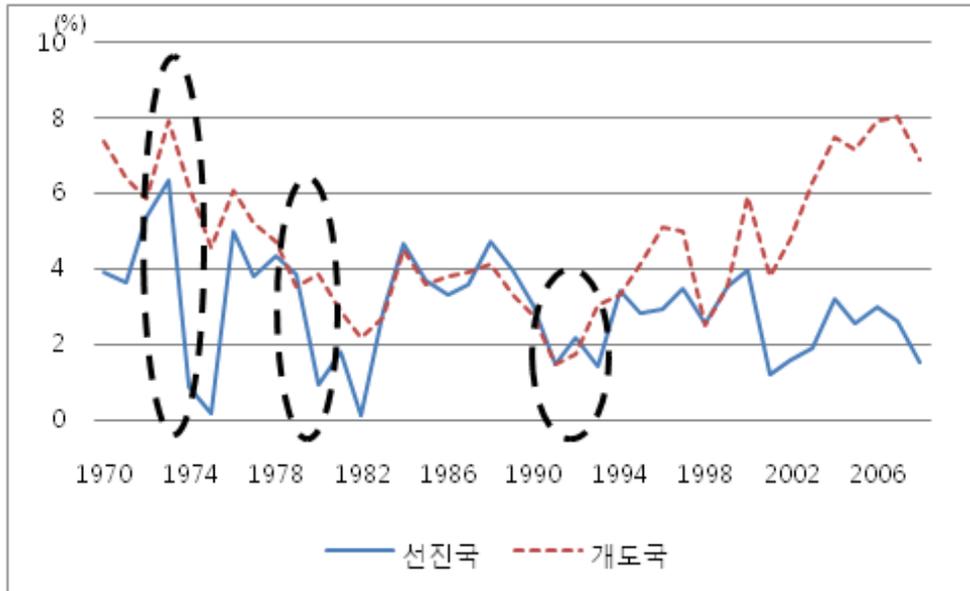
[표 30]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 | 외환위기(1997) | | | 글로벌 금융위기(2008) | | | |
|------|------------|------|------|----------------|-----|------|------|
| | 1997 | 1998 | 1999 | 1/4 | 2/4 | 3/4 | 4/4 |
| OECD | 3.7 | 2.7 | 3.3 | 2.6 | 1.8 | 0.8 | -1.1 |
| 유로 | 2.6 | 2.7 | 2.8 | 2.1 | 1.4 | 0.6 | -1.2 |
| 미국 | 4.5 | 4.2 | 4.4 | 2.5 | 2.1 | 0.7 | -0.2 |
| 일본 | 1.6 | -2.0 | -0.1 | 1.4 | 0.6 | -0.2 | -4.6 |
| 영국 | 3.3 | 3.6 | 3.5 | 2.6 | 1.7 | 0.3 | -1.8 |

자료: Datastream.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2. 국내경제 여건

가. 대외건전성

최근 국내경제의 대외건전성 관련지표, 금융부문 및 기업부문의 건전성 관련지표는 외환위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최근 외환보유고 비율(명목GDP 대비)은 23.4%(2008년 추정치)로 외환위기 당시 3.9%보다 크게 상승했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75.0%로 외환위기 당시 312.5%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또한 명목GDP 대비 순대외채권 비율도 -3.8%로 외환위기 당시 -13.2% 보다 개선되었다. 특히 최근의 대외채무중 직접투자의 대부투자(46억 달러), 선박수출 선수금(590억 달러), 환헤지용 해외차입금(390억 달러) 등 상환부담이 적은 외채(1,027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순대외채권 비율은 8.2%로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표 31]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 관련지표 비교

(단위: 억달러, %)

| | 외환위기 전후 |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 |
|------------------------|---------|-------|-------|-------------|-------|
| | 1996 | 1997 | 1998 | 2007 | 2008 |
| 외환보유고 | 332 | 204 | 520 | 2,622 | 2,012 |
| 명목 GDP 대비(%) | 5.9 | 3.9 | 15.0 | 27.0 | 23.4 |
| 경상수지 | -231 | -8.2 | 403 | 59 | -64 |
| 명목 GDP 대비(%) | -4.1 | -1.6 | 11.6 | 0.6 | -0.7 |
| 자본수지 | 232 | 13 | -3.1 | 62 | -509 |
| 명목 GDP 대비(%) | 4.1 | 0.2 | -0.9 | 0.6 | -5.9 |
| 수출증가율(%) ³⁾ | 3.7 | 4.9 | -2.8 | 14.1 | 13.6 |
| 순대외채권 | -462 | -680 | -345 | 374 | -323 |
| 명목 GDP 대비(%) | -8.3 | -13.2 | -10.0 | 3.6 | -3.8 |
| 총외채 | 1,573 | 1,742 | 1,638 | 3,731 | 3,804 |
| 명목 GDP 대비(%) | 28.2 | 33.7 | 47.3 | 39.4 | 44.2 |
| 단기외채 | 758 | 637 | 395 | 1,602 | 1,510 |
| 총외채 대비(%) | 48.2 | 36.6 | 24.2 | 41.9 | 39.7 |
| 외환보유고 대비(%) | 228.3 | 312.5 | 76.1 | 61.1 | 75.0 |

주: 1) 2008년 명목 GDP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8,609억 달러)

2) 2008년말 현재 순대외채권은 323억 달러이나 이중 직접투자의 대부투자(46억 달러), 선박 수출 선수금(590억 달러), 환헤지용 해외차입금(390억 달러) 등의 상환 부담이 적은 외채(1,027억 달러) 제외 시 순대외채권은 약 704억 달러(2008년 명목 GDP 대비 8.2%)

3) 통관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대외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첫째 자본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2008년 509억 달러 적자)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기조도 약화(외화수급의 불안정)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본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성장잠재력 약화, 기업수익 악화,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매도세(2008년 우리나라 주가가 40.7% 하락한 가운데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5.4% 절하)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주식

(지분) 투자잔고가 2007년 3,201억 달러에서 2008년 중 1,247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둘째 대외증권투자의 대규모 손실로 우리나라의 대외자산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증시의 주가 하락과 이머징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증권투자잔액이 2007년 중 1,586억 달러에서 2008년 중 754억 달러로 832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투자비중이 높은 홍콩, 중국, 인도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대외투자증권잔액이 크게 축소되었다.

[표 32] 국내주가 변동과 대외 채무

(단위: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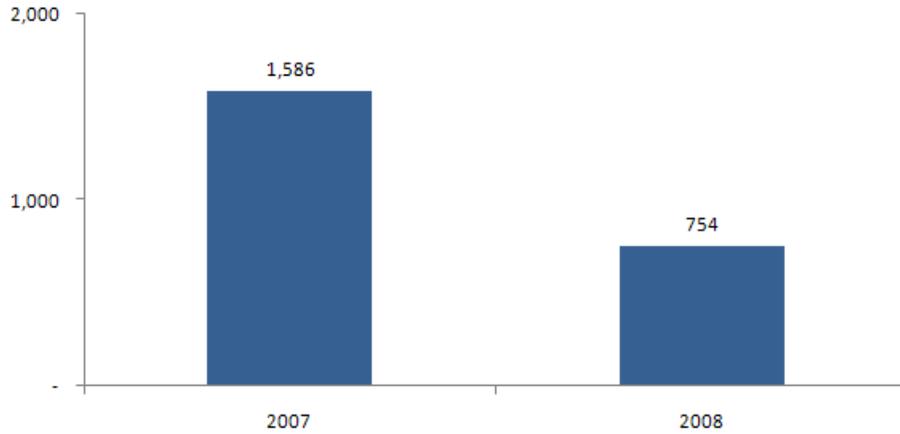
| | 2007 | 2008 |
|------------------------|-------|-------|
| 종합주가 상승률(%) | 32.3 | -40.7 |
| 대미달러 원화절상률(%) | -0.9 | -25.4 |
| 외국인 국내주식(지분) 투자잔고(억달러) | 3,201 | 1,247 |
| 대외채무(억달러) | 3,832 | 3,805 |
| (단기) | 1,603 | 1,511 |
| (장기) | 2,229 | 2,294 |
| 유동외채(억달러) | 2,040 | 1,940 |
| 유동외채 비중 (유동외채/대외채무, %) | 53.2 | 51.0 |
| 유동외채 비율 (유동외채/준비자산, %) | 77.8 | 96.4 |

주: 유동외채 = 단기외채 + 장기외채중 1년 이내 만기도래분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그림 8] 우리나라 대외 증권 투자 잔액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표 33] 우리나라 주식 투자국의 주가와 환율 변동률 추이

(단위: %)

| | | 홍콩 | 중국 | 미국 | EU | 인도 | 일본 |
|--------------------|------------|-------|-------|-------|-------|-------|-------|
| 주가상승률 | 2007 | 39.3 | 96.7 | 6.4 | 6.8 | 47.1 | -11.1 |
| | 2008 | -48.3 | -65.4 | -33.8 | -44.4 | -52.4 | -42.1 |
| 자국통화의 대미 달러 평가 절상률 | 2007 | -0.3 | 6.7 | - | 10.5 | 9.4 | 6.5 |
| | 2008 | 0.7 | 7.1 | - | -3.2 | -19.1 | -23.6 |
|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비중 | 2007년 말 기준 | 26.4 | 10.2 | 23.7 | 16.0 | 5.3 | 4.1 |

자료: 한국은행.

세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만기도래 규모(2008년 4/4분기 중 182억 달러 순차입, 2009년 2월부터 12월중 만기도래분 245.4억 달러)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해외차입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

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세계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자산 그중에서도 미국 국채 등으로 몰리고 있고 글로벌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증가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머징국가에 대한 대출억제 등으로 외화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국내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차입이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억제로 자금이 부족하자 외국투자자들은 해외증권투자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면서 이머징국가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환율의 불안정성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급등 후 빠르게 하락 안정세를 보인 반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등한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빠르게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4] 국내은행 외화차입 동향

(단위: 억달러)

| | | 2007 | 2008 | 4/4분기 |
|-----|------|------|-------|-------|
| 단기 | 차입 | 765 | 796 | 86 |
| | 만기도래 | 740 | 958 | 236 |
| | 순차입 | 25 | -162 | -150 |
| 중장기 | 차입 | 163 | 135 | 7 |
| | 만기도래 | 73 | 132 | 39 |
| | 순차입 | 90 | 3 | -32 |
| 합계 | 차입 | 928 | 931 | 94 |
| | 만기도래 | 813 | 1,090 | 276 |
| | 순차입 | 115 | -159 | -182 |

주: 한국시티 및 SC제일은행 제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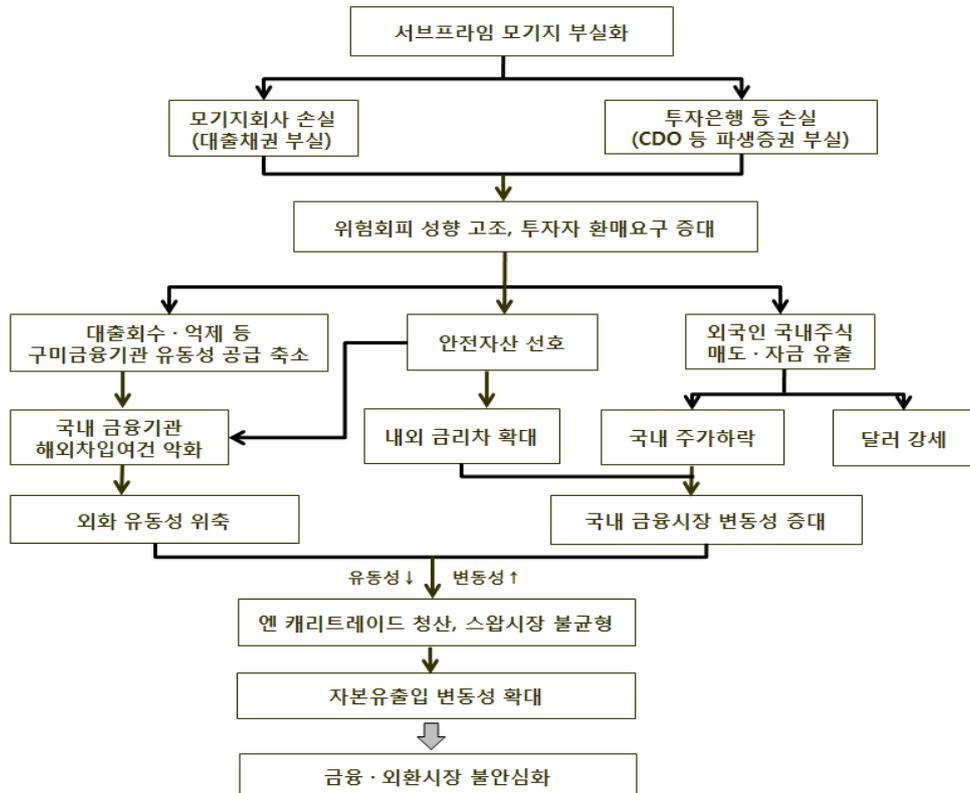
[표 35] 국내은행의 2009년 외화차입 만기 도래 규모

(단위: 억달러)

| | 2009 | | |
|-----------|-------|-------|-------|
| | 2~3월 | 2/4분기 | 2~12월 |
| 단기(147.1) | 77.2 | 32.5 | 138.8 |
| 장기(530.5) | 26.7 | 21.2 | 106.7 |
| 합계(677.6) | 103.9 | 53.7 | 245.4 |

주: 1) 한국시티 및 SC제일은행 제외.
 2) ()안의 수치는 2009년 1월말 현재 잔고.
 자료: 한국은행.

[그림 9]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국내금융·외환시장 파급경로



자료: 한국은행.

나. 은행의 건전성

국내은행들의 건전성 관련지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대비수익률(ROA) 등이 크게 상승했다. 건전성규제강화와 더불어 자체 위험관리시스템 운용으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또한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은행부문 건전성 관련 지표 비교

(단위: %)

| | 외환위기 전후 |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 |
|--------------|---------|-------|-------|-------------|---------|
| | 1996 | 1997 | 1998 | 2007 | 2008. 9 |
| BIS 자기자본비율 | 9.14 | 7.04 | 8.23 | 11.95 | 10.56 |
| ROA | 0.26 | -0.93 | -3.25 | 1.08 | - |
| 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 | - | - | - | 98.74 | 99.83 |
| 순이자마진(NIM) | - | - | 2.89 | 2.73 | 2.57 |

주: 외화유동성비율, 순이자 마진 등은 2008년 2/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다. 기업의 건전성

최근 기업건전성 관련지표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부채축소 및 수익중시 경영을 하면서 재무구조와 채산성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전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외환위기 당시 115%에서 2008년 3/4분기에는 457.2%로 상승했다. 전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424.6%에서 2008년 3/4분기에는 104.3%로 하락했다. 제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외환위기 당시 -4.2%에서 2007년에는 11.1%로 개선되었다.

[표 37]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전후 기업건전성 관련지표 비교

(단위: %)

| | 외환위기 전후 |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 | | |
|----------------|---------|--------|--------|-------------|--------|-----------|-------|
| | 1996 | 1997 | 1998 | 2006 | 2007 | 2008. 3/4 | |
| 이자보상비율 | 전산업 | 107.38 | 115.00 | 64.33 | 413.86 | 404.79 | 457.2 |
| | (제조업) | 112.13 | 129.09 | 68.28 | 439.33 | 469.80 | 622.1 |
| 부채비율 | 전산업 | 335.61 | 424.64 | 336.41 | 105.30 | 106.47 | 104.3 |
| | (제조업) | 317.11 | 396.25 | 303.02 | 98.88 | 97.83 | 102.6 |
| 유동비율 | 전산업 | 93.99 | 93.02 | 92.11 | 123.60 | 124.86 | 117.9 |
| | (제조업) | 91.89 | 91.77 | 89.375 | 120.51 | 121.31 | 116.7 |
| 매출액영업이익률 | 전산업 | 5.03 | 5.60 | 4.22 | 5.24 | 5.45 | 5.9 |
| | (제조업) | 6.54 | 8.25 | 6.11 | 5.34 | 5.88 | 6.6 |
| 총자산 순이익률(제조업) | | 0.5 | -0.93 | -3.59 | 5.2 | 5.6 | 3.7 |
| 자기자본 순이익률(제조업) | | 2.02 | -4.21 | -4.21 | 10.37 | 11.10 | - |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호)

[표 38]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채산성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p)

| | 1997(A) | 1998(B) | 격차(B-A, %p) |
|---------------|--------------|---------------|-------------|
| 회사채 수익률(%) | 13.4 | 15.0 | 1.6 |
| 차입금평균 이자율(%) | 10.6 | 13.5 | 2.9 |
| 금융비용/매출액 | 6.4 | 9.0 | 2.6 |
| 외환순익/매출액 | -3.1 | 0.1 | - |
| 대미달러 환율 | 951.1(-15.4) | 1,398.8(32.0) | - |
|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률 | -4.3 | -14.3 | - |
| 제조업 명목 임금 상승률 | 5.2 | -3.1 |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8.3 | 6.1 | -2.2 |
| 매출액 경상이익률 | -0.3 | -1.8 | -1.5 |

주: 1) 회사채 수익률은 3년만기 은행보증사채 평균 수익률.

2) 대미달러 환율은 기간중 평균, ()안은 절상률.

자료: 한국은행.

외환위기 직후에는 과잉부채 및 과잉투자,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와 연쇄 도산을 경험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과잉부채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외환비용 등으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8%로 부진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제조업경상이익률의 적자인 업체수 비중이 27.2%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29.0%로 1.8%p나 상승했다.

[표 39]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분포 변화

(단위: 구성비, %)

| | -10% 미만 | 0~10% | 10% 이상 | 적자업체 비중 |
|-------------|---------|-------|--------|---------|
| 1997(A) | 11.0 | 66.9 | 5.9 | 27.2 |
| 1998(B) | 18.0 | 62.3 | 8.7 | 29.0 |
| 격차(B-A, %p) | 8.0 | -4.6 | 2.8 | 1.8 |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과잉부채, 과잉고용, 과잉투자 축소 등)으로 금융비용부담과 인건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물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 인력, 조직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구조 및 수익성 개선이 지연된 상황이다.

[표 40] 외환위기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익성 비교

(단위: %, %p)

| | 부채비율 | | 자기자본비율 | | 차입금의존도 | | 매출액영업이익률 | | 매출액증가율 | |
|-----------------|-------|-------|--------|------|--------|------|----------|------|--------|------|
| | 1997 | 2007 | 1997 | 2007 | 1997 | 2007 | 1997 | 2007 | 1997 | 2007 |
| 대기업(A) | 390.0 | 85.3 | 20.4 | 54.0 | 56.5 | 18.0 | 9.7 | 6.7 | 12.9 | 10.2 |
| 중소기업(B) | 418.4 | 129.1 | 19.3 | 43.7 | 46.8 | 32.0 | 5.0 | 4.5 | 7.0 | 7.8 |
| 격차 (A-B, %p) | - | - | - | - | - | - | 4.7 | 2.2 | 5.9 | 2.4 |

자료: 한국은행.

라. 가계의 건전성

최근의 가계건전성 관련 지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외환위기 당시 가계신용은 175조원으로 경상GDP대비 38.9%에 불과했으나 2008년 현재는 72.5%(가계신용잔고 688조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가계자산도 크게 늘었으나 금융위기로 가계의 금융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했다.

가계의 건전성 관련지표 악화로 고용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표 41]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조원, %)

| | 외환위기 | | | | 글로벌 금융위기 | | | | |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가계 대출 | 151 | 185 | 166 | 192 | 449 | 493 | 550 | 595 | 648 |
| 가계 신용 | 175 | 211 | 184 | 214 | 474 | 521 | 581 | 630 | 688 |
| (증감률, %) | 22.4 | 20.9 | -13.0 | 16.5 | 6.1 | 9.9 | 11.5 | 8.4 | 9.2 |
| 경상GDP | 449 | 491 | 484 | 530 | 779 | 810 | 848 | 901 | 949 |
| 가계신용/경상GDP | 38.9 | 43.0 | 38.0 | 40.4 | 64.3 | 64.3 | 68.5 | 70.0 | 72.5 |

주: 2008년 경상GDP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표 42]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이후 국내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 비교

| | | 글로벌 금융위기 | 외환위기(1997년) |
|------------------------|---|-----------|-------------------------|
| 대외 여건 | 세계경제 | 동시 침체 | 미유럽 견조한 성장 (동아시아 침체) |
| | 세계 교역량 | 동시 침체 | 소폭 둔화 |
| | 세계 주택가격 | 동시 하락 | 견조 |
| | 세계 주가 | 동시 급락 | 미유럽 견조(동아시아 급락) |
| | 유가 | 급락 | 하락 |
| | 엔/달러 | 하락(엔화 강세) | 상승(엔화 약세) |
| | 국제금리 | 동시 급락 | 정체 후 하락 |
| 국내 경제 구조의 건전성 | - 대외건전성 | | |
| | • 외환보유고 | 크게 개선 | 저수준 |
| | • 단기 외채 | 저수준 | 고수준 |
| | • 경상수지 | 적자 반전 | 적자 |
| | - 금융부문 건전성 | | |
| | • BIS 자기자본 비율 | 개선 | 저수준 |
| | • ROA | 개선 | 저수준 |
| | - 기업부문 건전성 | | |
| | • 이자 보상 비율 | 크게 개선 | 저수준 |
| | • 부채 비율 | 저수준 | 고수준 |
| | • 매출액 영업 이익률 | 크게 개선 | 저수준 |
| | - 가계부문 건전성 | | |
| | • 국민소득 대비 가계대출 | 크게 상승 | 저수준 |
| • 도시근로자 경상소득 상승률 | 낮은 증가세 | 높은 증가세 | |
| • 개인 순저축률 | 저수준 | 높은 수준 | |
| 총 합 | 최근의 금융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비교해볼때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대외여건은 악화되었으나 국내경제 구조의 건전성(위기 대응 능력)은 개선된 상태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세계경기순환 동조성 강화

2000년 이후 시장개방 확대와 글로벌화 진전(금융 및 무역부문)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경제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미국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두 지표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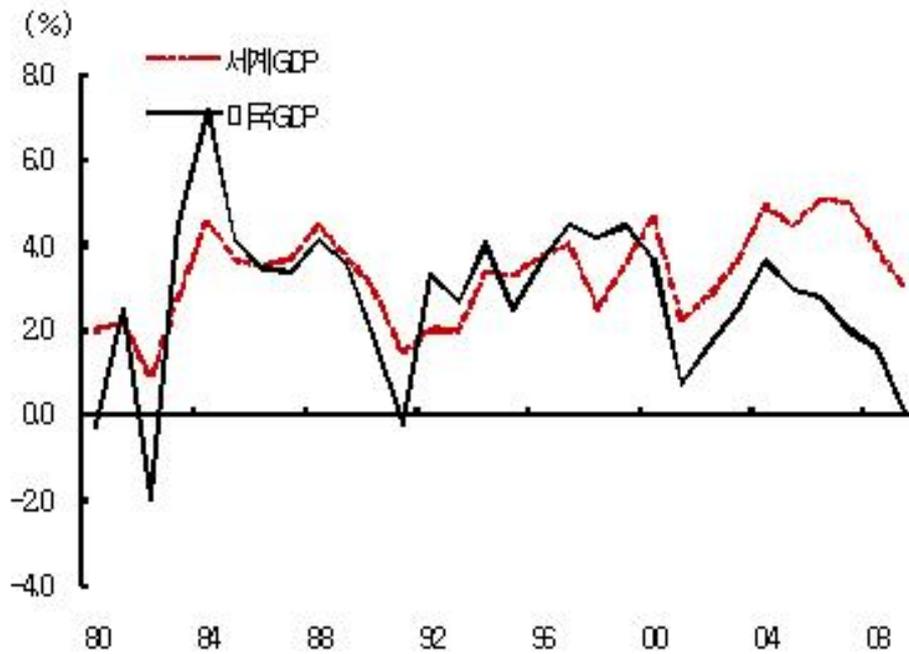
[표 43] 미국 경제성장률과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

| | 1980~1989 | 1990~1999 | 2000~2007 |
|-------|-----------|-----------|-----------|
| 일본 | 0.19 | -0.61 | 0.92 |
| 유로 | 0.41 | 0.00 | 0.50 |
| 독일 | -0.02 | 0.41 | 0.59 |
| 프랑스 | 0.68 | -0.56 | 0.33 |
| 영국 | 0.49 | 0.82 | 0.55 |
| NIEs | 0.57 | -0.38 | 0.76 |
| 홍콩 | 0.12 | -0.29 | 0.92 |
| 한국 | 0.50 | -0.39 | 0.29 |
| 대만 | -0.08 | -0.13 | 0.89 |
| 싱가포르 | 0.57 | -0.36 | 0.78 |
| ASEAN | -0.09 | -0.38 | 0.78 |
| 인도네시아 | 0.05 | -0.39 | 0.59 |
| 말레이시아 | -0.01 | -0.37 | 0.83 |
| 중국 | 0.49 | 0.12 | 0.28 |
| 인도 | 0.39 | 0.58 | 0.53 |
| 브라질 | 0.00 | 0.22 | 0.61 |
| 중동 | 0.53 | -0.65 | 0.73 |

자료: IMF.

2000년 이후 일본 및 유로의 경제성장률과 미국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92, 0.50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기순환과 미국의 경기순환은 최근 들어 양국의 경기정점 시점이 일치하고 있는 등 양국의 경기순환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림 10]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Datastream.

[표 44] 미국과 일본의 경기순환

| 일 본 | | | | | 미 국 | | | | | 비 고 |
|-----|-------|------------|-------|------------|-----|-------|------------|-------|---------------|--|
| No | 저점 | 확장 (개월) | 정점 | 후퇴 (개월) | No | 저점 | 확장 (개월) | 정점 | 후퇴 (개월) | |
| | | | | | 1 | 45/10 | 37 | 48/11 | 11 | |
| 1 | | | 51/6 | 4 | 2 | 49/10 | 45 | 53/7 | 10 (-6.7) | |
| 2 | 51/10 | 27 | 54/1 | 10 | 3 | 54/5 | 39 | 57/8 | 8 (-10.5) | |
| 3 | 54/11 | 31 | 57/6 | 12 | | | | | | |
| 4 | 58/6 | 42 | 61/12 | 10 | 4 | 58/4 | 24 | 60/4 | 10 (-14.7) | |
| 5 | 62/10 | 24 | 64/10 | 12 | 5 | 61/2 | 106 | 69/12 | 11 (-2.8) | |
| 6 | 65/10 | 57 | 70/7 | 17 | | | | | | |
| 7 | 71/12 | 23 | 73/11 | 16 | 6 | 70/11 | 36 | 73/11 | 16 (-2.6) | 71/8 닉슨쇼크 73/10~ 제1차석유위기 79~ 제2차석유위기 |
| 8 | 75/3 | 22 | 77/1 | 9 | 7 | 75/3 | 58 | 80/1 | 6 (-12.2) | |
| 9 | 77/10 | 28 | 80/2 | 36 | 8 | 80/7 | 12 | 81/7 | 16 (-8.6) | |
| 10 | 83/2 | 28 | 85/6 | 17 | 9 | 82/11 | 92 | 90/7 | 8 (-10.7) | 85/9 플라자합의 |
| 11 | 86/11 | 51 | 91/2 | 32 | | | | | | |
| 12 | 93/10 | 43 | 97/5 | 20 | 10 | 91/3 | 120 | 01/3 | 8 (-5.0) | 97/7~ 아시아통화위기 98/8~ LTCM 파탄 |
| 13 | 99/1 | 22 | 00/11 | 14 | | | | | | |
| 14 | 02/1 | | | | 11 | 01/11 | 73 | 07/12 | | |
| 평균 | | 33 | | 16 | 평균 | | 58 | | 10 | |

주: ()안의 수치는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 변화율 연율화한 경기하강 속도.
 자료: NBER, 일본 내각부.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 등으로 국내경기도 선진국 경기, 특히 미국경기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 시점이 향후 국내경기 회복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국내경기 회복시점은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늘어나야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가와 미국주가의 동조성이 크게 강화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미국 경제성장률

의 상관계수는 0.29로 90년대(-0.39)보다 상관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주요국 경기부양정책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국 경기부양정책의 내용²⁾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와 회복시기 등은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정책 효과의 확산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신용경색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및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민합동투자펀드 및 기업대출촉진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안정화 정책의 실시를 발표했다.

[표 45]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 | 2007년말 | 2008 | | | | 2009 |
|---------|--------|------|------|-------|-----------|-----------|
| | | 7월말 | 10월말 | 11월말 | 12월말 | 1월말 |
| 영국(A) | 5.50 | 5.00 | 4.50 | 3.00 | 2.00 | 1.50 |
| 미국(B) | 4.25 | 2.00 | 1.00 | 1.00 | 0.00~0.25 | 0.00~0.25 |
| 유로지역(C) | 4.00 | 4.25 | 3.75 | 3.25 | 2.50 | 2.00 |
| A-B(%p) | 1.25 | 3.00 | 3.50 | 2.00 | 2.00~1.75 | 1.50~1.25 |
| A-C(%p) | 1.50 | 0.75 | 0.75 | -0.25 | -0.50 | -0.50 |

자료: BOE, FRB, ECB.

2) 주요국가의 부문별 경기부양 정책의 내용은 <부록2>를 참고할 것.

[표 46] 미국 재무부의 금융안정 계획의 주요내용(2009.2.10)

| | 주요내용 |
|------------------|--|
| 금융안정신탁 | - 정부의 투자지분 관리 |
| 관민합동투자펀드 | - 0.5조~1조 달러 규모의 펀드조성 |
|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촉진 | - 소비자 및 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 담보 대출 한도 1조 달러로 확대 |
| 주택지원 및 담보주택 차압방지 | - 연준이 GSE 채권 매입(0.6조 달러) |
| 중소기업 및 지역대출 확대 | - 중소기업청 대출 한도 75%~90%로 확대 |

자료: 미 재무부.

이보다 앞서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7,87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을 실시(상하양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할 계획을 확정했다.

[표 47] 미국의 경기부양안

(단위: 억달러)

| 내역 | 금액 |
|------------------|-------|
| 세금감면 | 2,810 |
| 재정지출 | 5,060 |
| - 인프라, 교육, 에너지 등 | 1,500 |
| - 의료사업 등 | 870 |
| 합계 | 7,870 |

주: 1) 상하양원 최종합의안.

2) 2009년 1,696억 달러, 2010년 3,565억 달러, 2011년 1,746억 달러 규모.

3) 2009년 GDP 상승권과 1.3% 이상, 고용 80만명 이상 증가 예상.

자료: CBO.

유럽, 일본, 중국 등도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중국은 내수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1997년 전후(아시아 위기 당시)에 비해 기초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어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대책도 예상된다.

[표 48] 주요국 경기부양 추진 규모

| | 중국 | 일본 | 미국 | 독일 | 이태리 | 영국 |
|--------|--------|---------|----------|---------|---------|----------|
| 금액 | 4조 위안 | 26.9조 엔 | 7.8천억 달러 | 500억 유로 | 800억 유로 | 150억 파운드 |
| GDP 비율 | 14% 내외 | 5% 내외 | 5% 내외 | 2% 내외 | 5% 내외 | 1% 내외 |

주: GDP 대비 비율은 2008년 명목 GDP 추정치에 대한 비율임.

자료: Bloomberg.

[표 49] 아시아 경제위기시와 최근의 중국 경제여건 및 정책 비교

| | | 1997 | 2008 |
|-------|-----------|---|---|
| 경기 대책 | 재정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7,500억 달러 • 인프라투자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6,000억 달러 • 인프라투자 확대 • 사회보장 및 소득 증대 |
| | 금리 인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98년 10.08% → 6.98% (3.1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중 7.47% → 5.58% (1.89%p) |
| 기초 여건 | 정부 재정수입 | • GDP의 11% (1,132억 위안) | • GDP의 21% (5조 1,322억 위안) |
| | 기업 당기순이익 | • GDP의 5% | • GDP의 23% (2007년 기준) |
| | 금융기관 부실채권 | • 30% 전후 | • 7% 전후 (2007년 기준) |
| | 외환보유액 | • 1,450억 달러 | • 19,000억 달러 |
| | 수출 비중 | • GDP의 19.2% | • GDP의 37.5% |

자료: 중국국가 통계연감, Datastream.

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으로 미국 등 세계경제가 2009년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IMF는 2009년 선진국경제성장률은 2.0% 감소(2008년 중 1.0% 성장)에서 2010년 중 1.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2009년 중 1.6% 감소에서 2010년 중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로경제는 2009년 중 2.0% 감소에서 2010년 중 0.2% 성장, 일본경제는 2009년 중 2.6% 감소에서 2010년 중 0.6% 성장을 전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중 6.3% 성장한 개도국경제는 2009년과 2010년 중 각각 3.3%, 5.0%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중 중국경제는 6.7% 성장(2008년 중 9.0% 성장)에서 2010년 중 8.0% 성장, NIEs는 3.9% 감소(2008년 중 2.1% 성장)에서 2010년 중 3.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중 세계교역량증가율은 2.8% 감소하여 2008년(4.1% 증가)보다 6.9%p 하락할 것이나 2010년에는 3.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선진주요국은 물론이고 개도국 등도 동시에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2010년부터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표 50] 국가별 경기부양 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

| | 경기부양안 규모(GDP대비 비율) | | | 성장률 제고효과(%) | |
|---------------------|--------------------|------|------|-------------|-----------|
| | 2008 | 2009 | 2010 | 2009 | 2010 |
| 미 국 | 1.1 | 1.9 | 2.9 | 0.6~1.4 | 0.4~1.2 |
| 영 국 | 0.2 | 1.4 | -0.1 | 0.4~1.0 | -0.4~-1.0 |
| 일 본 | 0.4 | 1.4 | 0.4 | 0.4~1.3 | -0.3~-0.7 |
| 독 일 | 0.0 | 1.5 | 2.0 | 0.4~1.2 | 0.3~0.9 |
| 프랑스 | 0.0 | 0.7 | 0.0 | 0.2~0.6 | 0.0~-0.1 |
| 중 국 | 0.4 | 2.0 | 2.0 | 0.6~2.1 | 0.5~1.4 |
| 한 국 | 1.0 | 1.5 | 0.3 | 0.5~1.3 | -0.3~-0.8 |
| OECD전체 (PPP가중평균) | 0.5 | 1.4 | 1.3 | 0.4~1.3 | 0.1~0.3 |

자료: IMF(2009. 2)

[표 5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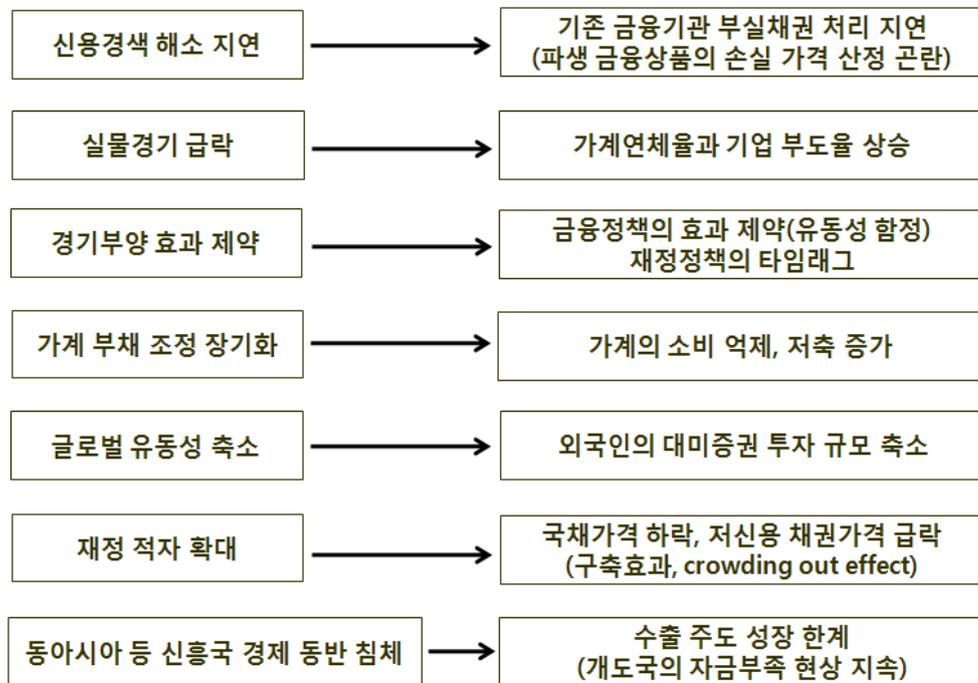
| | 2008 | 2009 | 2010 |
|--------|------|------|------|
| 세계경제 | 3.4 | 0.5 | 3.0 |
| 선진국 경제 | 1.0 | -2.0 | 1.1 |
| 미국 | 1.1 | -1.6 | 1.6 |
| 유로 | 1.0 | -2.0 | 0.2 |
| 일본 | -0.3 | -2.6 | 0.6 |
| NIEs | 2.1 | -3.9 | 3.1 |
| 중국 | 9.0 | 6.7 | 8.0 |
| 세계교역량 | 4.1 | -2.8 | 3.2 |

자료: IMF (2009. 1)

다. 경기부양 정책의 제약요인

2009년과 2010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경색 해소 지연, 과잉설비 조정 지연, 과잉가계부채 조정 지연, 경기부양효과의 한계(유동성 함정, 국채발행 확대에 의한 금리인상 등) 등으로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11] 미국 및 세계경제 회복지연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신용경색 장기화, 중국경제 하드랜딩, 동유럽 등 신흥개도국의 동시다발적인 외환금융위기, 디플레이션 등이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 회복국면이 IMF 전망치보다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표 52] 글로벌 경제 장기침체 요인

| 위험 요인 | 주요 내용 |
|--------------------|--|
| 신용경색 장기화 | 자산가격 하락 → 신용경색 → 실물경기침체 → 신용경색심화 → 경기침체 장기화 |
| 디플레이션 | 실물경기침체 → 수요급감 → 재고급증 → 물가하락 → 디플레이션 → 실질부채급증 |
| 중국경제의 하드랜딩 | 수출감소 → 생산감소 → 가동률하락 → 과잉설비부담 급증 → 채산성악화 → 내수부진 → 부도급증 → 설비조정 |
| 신흥개도국의 연쇄적 외환금융 위기 | 수출감소 → 달러차입제약 → 외자유출 → 외환부족(동유럽 등)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과거 자산가격 하락과 신용경색이 동반된 경기침체국면의 경기양상국³⁾

1970년 이후 선진국 경제는 5번의 큰 금융위기와 13번의 작은 금융위기를 경험(OECD, Financial Crises 2009.1)했다. 5번의 큰 금융위기는 스페인(1997년), 노르웨이(1987년), 핀란드(1991년), 스웨덴(1991년), 일본(1992년) 등이고 13번의 작은 금융위기는 호주(1989년), 미국(1984년), 영국(1974년, 1991년, 1995년), 독일(1977년), 뉴질랜드(1987년) 등이다. 과거의 금융위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위기의 크기와 정책대응 방식에 따라 실물경제 및 자산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의 강도(충격)가 클수록 실물경제 및 자산가격의 하락 폭이 크고 침체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시 정책대응이 늦을수록(일본의 경험) 경기 및 자산가격 침체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주식가격은 주택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고, 침체기간도 짧은 가운데 회복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금융위기의 경우 주택가격 및 민간신용비율(GDP대비)의 하락기간이 4년 이상(위기발생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시 주택경기회복과 신용경색 해소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큰 금융위기 이후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은 2년(위기

3) 경제위기 전후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는 <부록1>을 참고할 것.

발생 이후)간 하락 후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투자는 3년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큰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은 2년간 급등 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년간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물가상승 기조는 빠르게 진정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디플레이션(일본) 위험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큰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비율(GDP대비)이 2년간 급락 후 회복하고 경상수지비율은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융위기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이후 가장 큰 금융위기라는 점에서 1970년대 경험했던 금융위기에 비해 그 충격(경기침체 폭과 침체기간)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이다. 과거 큰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회복이 2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2010년 이후에나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수출감소 하의 내수회복 대책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자 경제성장, 설비투자, 고용, 소비 등이 일제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의 악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내수부진과 수출급감에 따라 기업들의 판매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한계상황에 달한 기업들부터 고용을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2009년 상반기에는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외여건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악화되었으나 국내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내성은 강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수출 감소가 내수에 미치

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의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사업자 부담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이직, 전직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 등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처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수출입금융 및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경쟁력 있는 주요 부품 및 소재관련 업종이 붕괴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내수침체 가속화는 물론이고 세계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수출부진 지속으로 국내경기회복이 늦어지고 국제수지 개선도 지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들은 조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격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록 1> 각국의 부문별 경기부양안

[부록 1-1] 주요국의 가계부문 지원 정책

| | 한시적 정책 | 항구적 정책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환급: 600~1,200달러 (2008) -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500~1,000 달러 (2009 하원통과) - 실업수당 일시적 인상(25달러/주) - 긴급실업보상금 기간확대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율 인하: 17.5% → 15% (2008~2009) - 연금수령자 보조금지급('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 보조금인상 조기적용(2009년 4월 → 1월) - 소득세 기본공제액 추가인상(2009) - 저소득층 세금환급금 영구화(2009)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너스지급: 100유로/아동 (2009) - 신규등록 자동차세 면제: 1~2년 - 고용보험료 인하: 3.3 → 2.8%(2009~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소득세율 인하: 15% → 14%(2009) - 아동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인상(2009)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증액(2009) - 의료보험료 인하(2009)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료 인하: 1.5 → 1.1%(2009) - 생활지원정액급부금: 2조엔 (2009) - 상장주식 배당 및 양도소득 10% 경감세율 적용(2009~2011) - 자동차 중량세 감면(2009~2012) - 주택차입금 특별공제 연장(2008~2013) - 해고 파견근로자 주택제공시 고용주 지원(2008~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고용보험 혜택확대(1년 → 6월 이상 고용) |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지급: 829억 NT 달러 (2009. 1~2) - 국외소득 최저한세 과세연기(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검토 |

자료: 조세연구원.

[부록 1-2] 주요국의 고용 유지 및 고용창출정책

| | 한시적 정책 |
|-----|---|
| 미국 | - 의료기록 전산망 구축, 과학연구시설 지원 등: 360억 달러 (2009 하원통과) |
| 영국 | - 자본지출조기집행: 2010~2011 → 2008~2010 (GBP 30억 : Pre-Budget Report 2008) - 실업자재취업지원(GBP 13억), 국가고용파트너십 제도 지원 등을 강화 |
| 독일 | - 교통시설 보수·투자: 10억 유로 (2008 11월 발표) - 지방정부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원금 증액: 30억 유로 - 연방-주정부 합동프로그램: 2억 유로 - 건물 효율화, 자동차 기술개발 투자지원: 135억 유로 - 학교, 도로, 병원시설 개선: 33억 추가(총 173억) - 고용보험료 인하: 3.3 → 2.8% (2009~2010) |
| 일본 | - 고용유지 대책: 500억엔(2008~2009) (2008 추경, 세제개편안) · 파견 근로자 고용시 고용주 지원 등 - 지방공공단체의 일시적 고용지원: 4,000억엔(2008~2009) - 고용보험료 인하: 1.5 → 1.1%(2009) |
| 대만 | - 교량, 지하철, 하수도 등 기반시설건설: 4,000억 NT 달러(2008년 11월 발표) |
| 프랑스 | - 공공부문(인프라, 에너지서비스 현대화, 주택 등) 투자 : 123억 유로 (2008년 12월 발표) - 10인 이하 고용기업의 2009년 신규고용시 최저임금의 1.6배까지 세제지원 |
| 중국 | - SOC 건설: 4조 위안 (2008 11월 발표) |

자료: 조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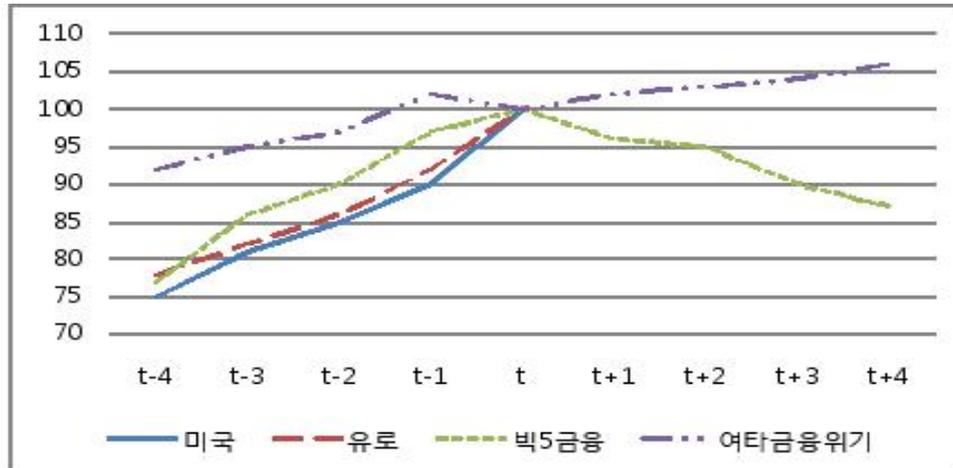
[부록 1-3] 주요국의 기업활동 지원 정책

| 기업활동 지원정책 |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투자자산에 대한 즉시 상각/가속상각 허용 (2008 시행) - (소기업) 가속상각법 적용기한 2년 연장 (2009 하원통과) - (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2년 → 5년 (2009 하원통과)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수출기업 자금지원: GBP 10억 (Pre-Budget Report 2008) -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1년 → 3년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 연기: 21% → 22% - 해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검토)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별대출: 150억 유로 (2008년 11월 발표) - 중소기업 R&D 자금지원(연 4.5억 유로): 2009~2010 - 미래형자동차 엔진개발 지원(5억 유로): 2009~2010 -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달(70억 유로): 2009~2010 - 중소기업 특별상각제도 2년 연장: 2009~2010 - 동산에 대한 25% 정률 상각 허용: 2009~2010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수급구조개혁 설비투자 즉시상각: 2009~2011 (2008년 12월 발표) - 자원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특별상각: 2009~2012 - 중소기업 경감세율 인하(22% → 18%): 2009~2010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용 자동차 구매 보조금인상: 1,000유로 (2008년 12월 발표) - 자동차 금융회사에 크레딧 라인제공: 10억 유로 -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펀드 설립: 3억 유로 |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 연장: 5년 → 10년 (2009년 1월 의회 통과) |

자료: 조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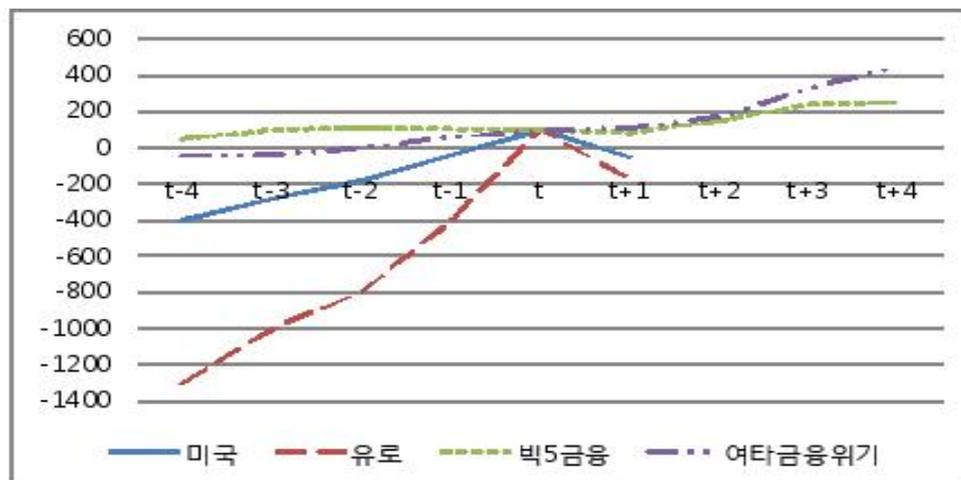
〈부록 2〉 경제위기의 발생과 거시경제지표의 전개 추이

[부록 2-1] 최근 주요국 민간신용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민간신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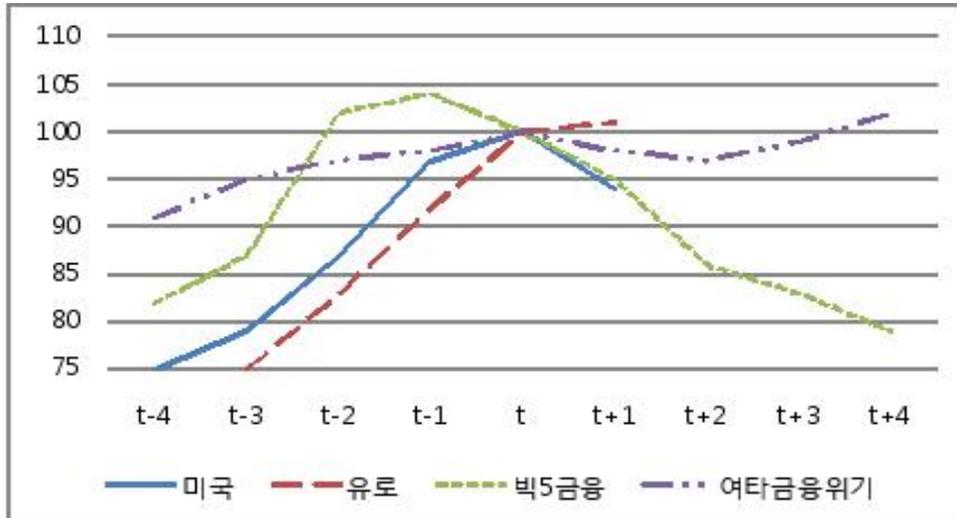
-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2] 최근 주요국 주식가격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식가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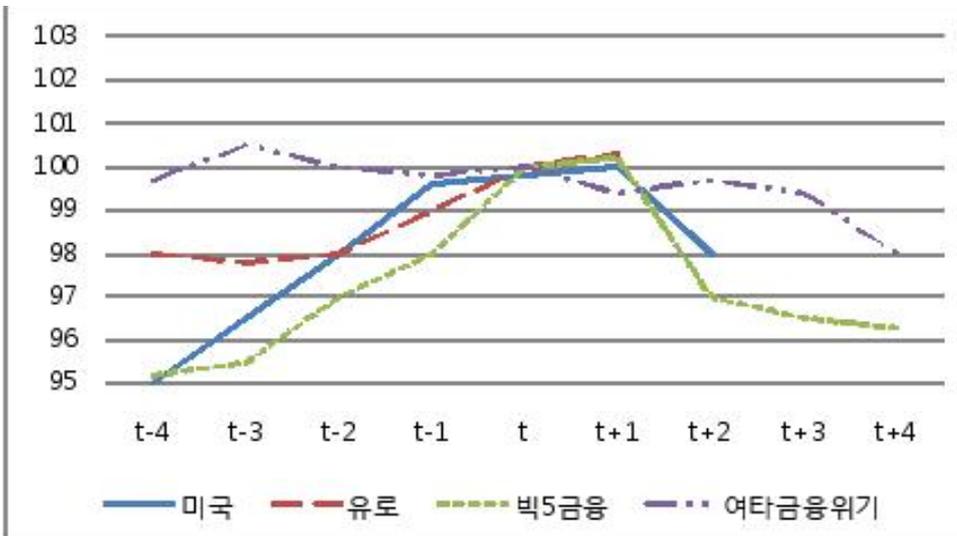
-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3] 최근 주요국 실질주택가격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실질주택가격 비교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4] 최근 주요국 단기이자율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단기이자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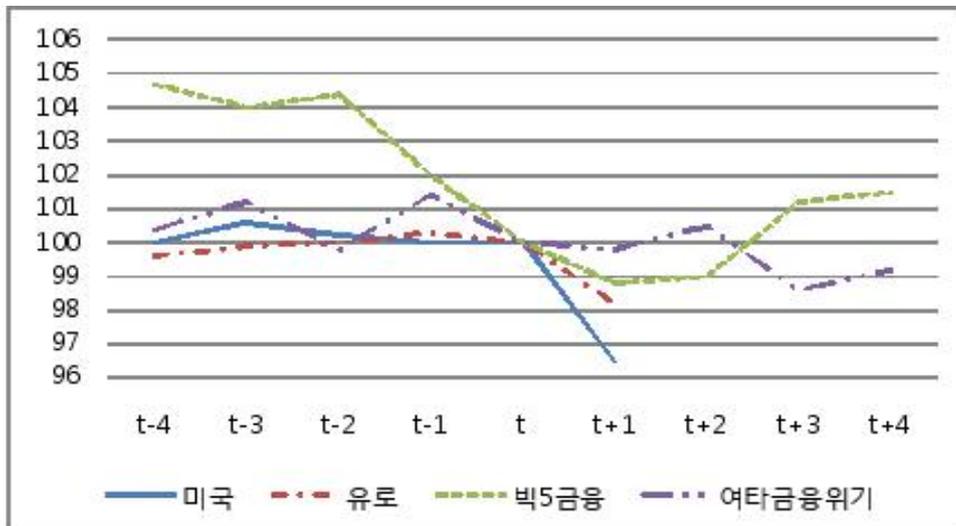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5] 최근 주요국 실질GDP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실질GD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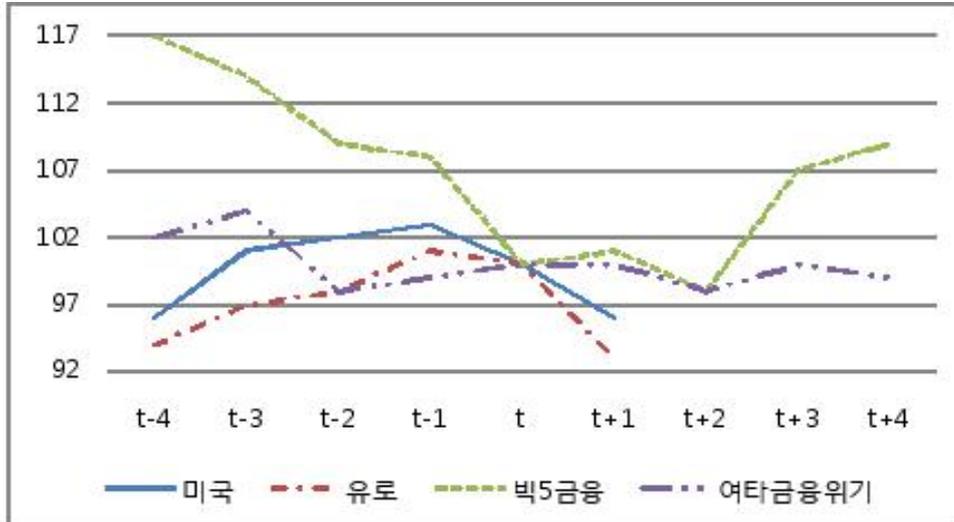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6] 최근 주요국 민간소비와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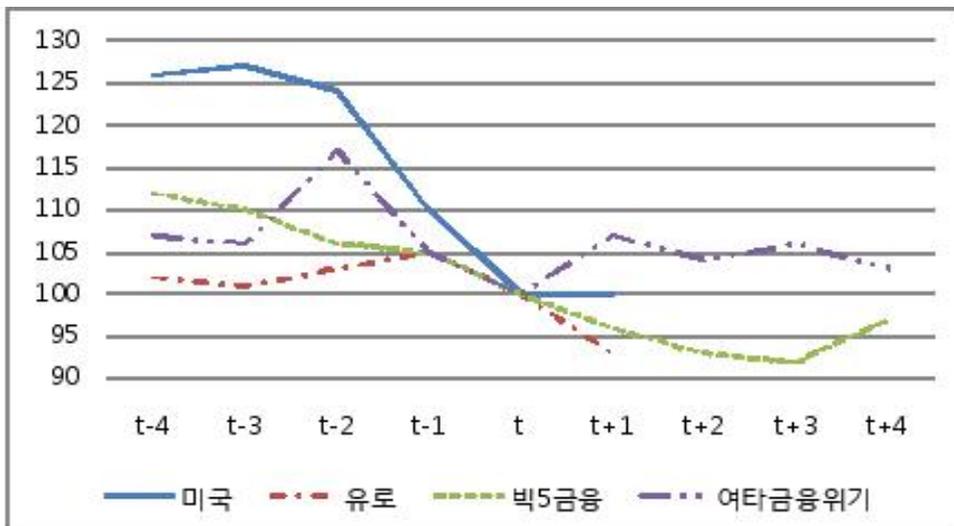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7] 최근 주요국 설비투자율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율 비교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8] 최근 주요국 주택투자율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택투자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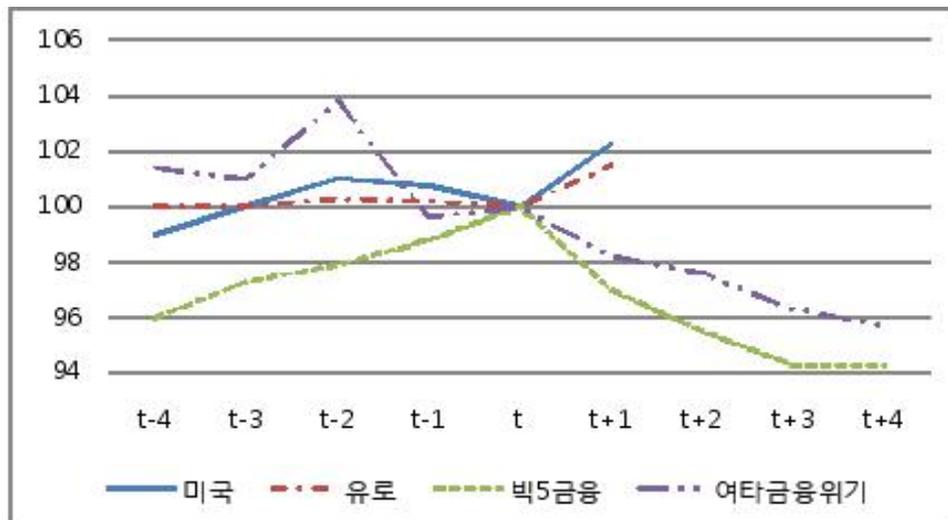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9] 최근 주요국 실업률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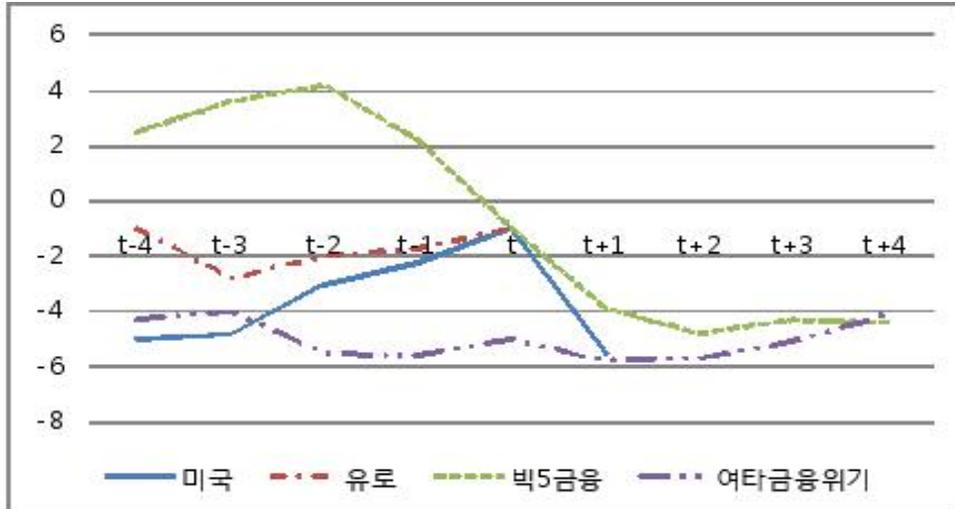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10] 최근 주요국 소비자물가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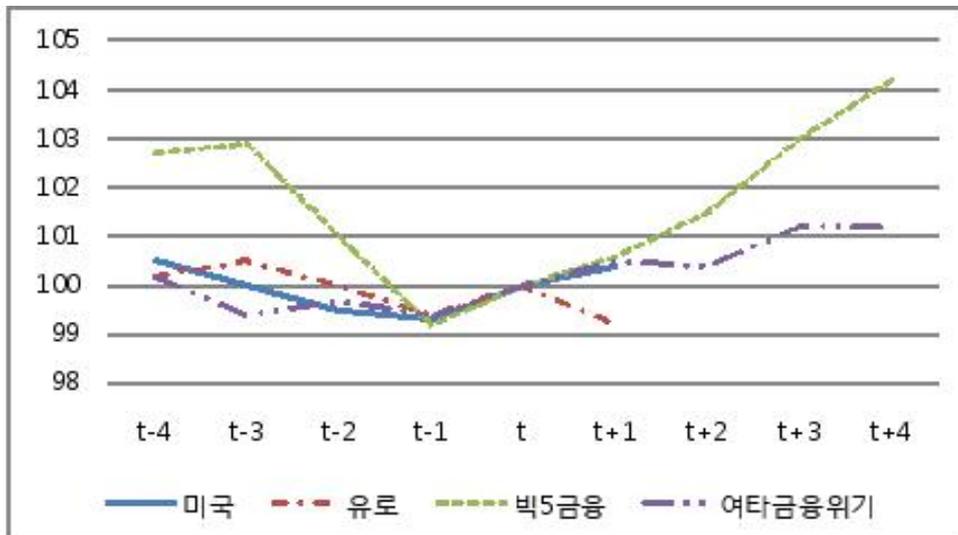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11] 최근 주요국 재정수지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비교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부록 2-12] 최근 주요국 경상수지와 과거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비교



주: 1) t시점은 위기발생 시점.
 2) t+1은 위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3) 증가율을 표준화(100)
 자료: OECD.

[경제현안분석 목록]

| | 제 목 | 집필자 | 발간일 |
|----|--|---------------|----------|
| 1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 2004. 10 |
| 2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 전승훈 | 2004. 12 |
| 3 |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기승 | 2005. 5 |
| 4 |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 정문종 | 2005. 6 |
| 5 | 국제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 문성환 | 2005. 7 |
| 6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 송원근 | 2005. 12 |
| 7 |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전승훈 | 2006. 1 |
| 8 |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김기승 | 2006. 2 |
| 9 |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 문성환 | 2006. 5 |
| 10 |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 | 유승선 | 2006. 5 |
| 11 |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 정문종 | 2006. 6 |
| 12 |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 송원근 | 2006. 6 |
| 13 |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 전승훈 | 2007. 5 |
| 14 |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 이남수, 서세욱 | 2007. 6 |
| 15 |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 정문종 | 2007. 6 |
| 16 |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 이영환, 전승훈, 홍인기 | 2007. 7 |
| 17 |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 황종률 | 2007. 7 |
| 18 |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 신동진 | 2007. 8 |
| 19 |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 문성환 | 2007. 8 |
| 20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 정상훈 | 2007. 9 |
| 21 |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 황진영 | 2007. 9 |
| 22 |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 장인성 | 2007. 11 |
| 23 | 원화가지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성명기 | 2007. 11 |
| 24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 황진영 | 2007. 12 |
| 25 |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신동진 | 2007. 12 |
| 26 |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이영환, 이성규 | 2008. 1 |
| 27 |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 연훈수 | 2008. 4 |
| 28 |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 정상훈, 이종인 | 2008. 8 |
| 29 | 유가 환급금 지급(안) 평가 |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 2008. 9 |
| 30 | 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 이남수, 이성규 | 2008. 9 |
| 32 |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R&D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 이상훈 | 2008. 11 |
| 33 |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정지은 | 2008. 11 |
| 34 |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 이영환, 정지은 | 2008. 11 |
| 35 |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심혜정 | 2008. 12 |
| 36 |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 황진영 | 2008. 12 |
| 37 |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 2008. 12 |

경제 위기의 전개와 대응

-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발 간 일 2009년 3월 10일
편 집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TEL 02·2070·3114
인 쇄 처 한학문학 (TEL 02·313·7593)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 (TEL 02·2070·307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183-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